

제 3 장

핵심지표 분석

□ 부산 청년패널조사 10대 핵심지표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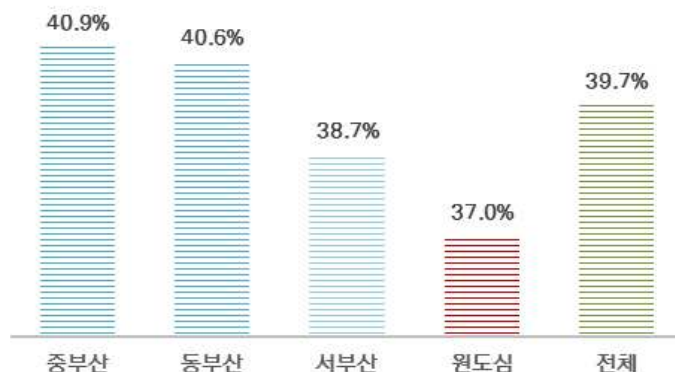
〈그림 3-1〉 부산 청년패널조사 10대 핵심지표

8) 핵심지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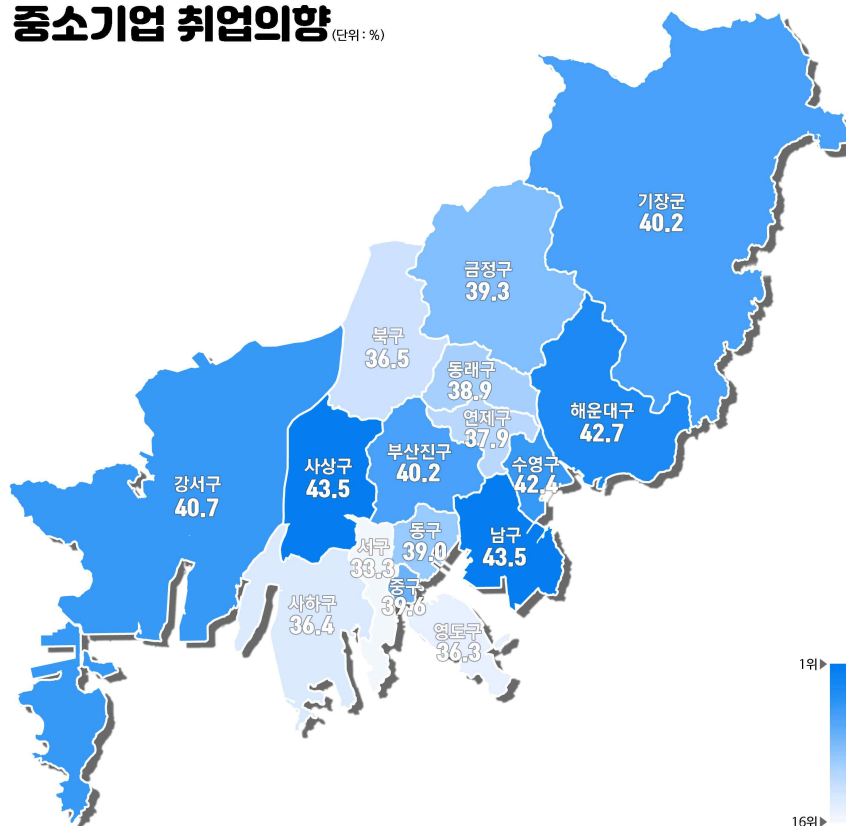
1. 중소기업 취업 의향

➤ 지표 정의 :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취업할 의향 있는 청년 비율

- 응답자의 39.7%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것이라고 응답
 - 중부산(40.9%)의 비중이 높고, 원도심(37.0%)의 비중이 낮음
 - 남구, 사상구, 해운대구, 수영구 순으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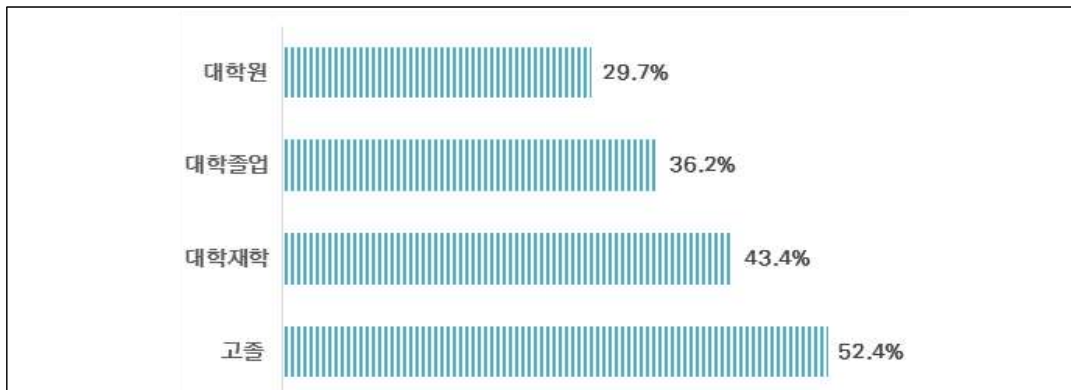
중소기업 취업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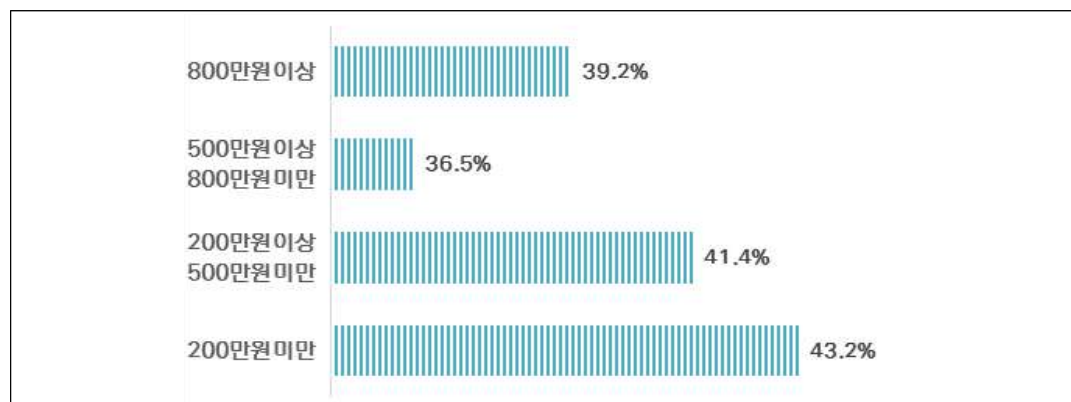
-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낮은 편
 - 고졸의 52.4%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 졸업자는 36.2%, 대학원 이상은 29.7%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높은 편
 -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다시금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아짐



1) 중소기업 취업의향 결정요인: 어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가?

-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고, 부산시 소속감이 높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음
- ☞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 부산시에 대한 높은 소속감을 높여 중소기업 구직난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 필요

〈표 3-1-1〉 중소기업 취업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소기업 취업 의향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091	0.078	1.095
연령	-0.045 ***	0.014	0.956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045 ***	0.247	0.561
대학졸업	-0.579 ***	0.170	0.496
대학원	-0.900 ***	0.275	0.407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03	0.097	0.997
서부산	-0.077	0.102	0.925
원도심	-0.159	0.125	0.853
월 평균 가구소득	-0.029 *	0.013	0.972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063	0.146	1.065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394	0.146	0.674
학생	-0.146	0.391	0.865
주부	0.156	0.215	1.169
무직/준비	0.061	0.144	1.063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108	0.147	0.897
기타	-0.119	0.210	0.888
부산시 소속감	0.123 ***	0.043	1.131
(상수)	1.200	0.475	3.319
카이제곱	58.755 ***		
Pseudo-R ² (McFadden)	0.027		
BIC	4060.308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높을수록 창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장래 창업을 위한 디딤돌로서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
- ☞ 기업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특성이 창업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중소기업 취업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필요
- ☞ 중소기업 취업이 창업과 같이 새로운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일경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정책 마련 필요

〈표 3-1-2〉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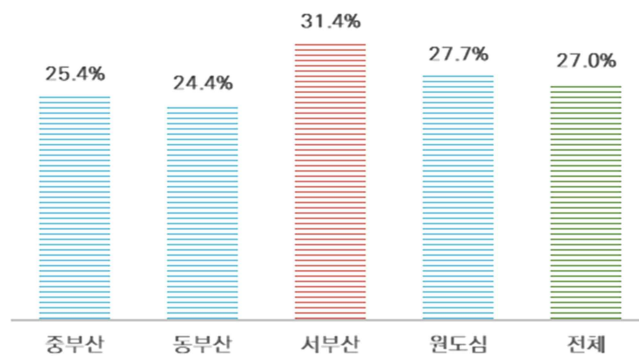
	창업의사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39	0.084	1.149
연령	0.020	0.014	1.02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235	0.196	0.791
대학졸업	-0.45 **	0.176	0.637
대학원	-0.09	0.272	0.914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28	0.11	0.972
서부산	0.306 **	0.109	1.358
원도심	0.148	0.135	1.16
월 평균 가구소득	0.016	0.014	1.016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050	0.141	1.05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436 **	0.149	1.547
기타	0.405 †	0.21	1.499
중소기업 취업 의향	0.134 *	0.042	1.144
(상수)	-1.938 ***	0.479	0.144
카이제곱	46.844		
Pseudo-R ² (McFadden)	0.022		
BIC	3571.858		
사례수	3,008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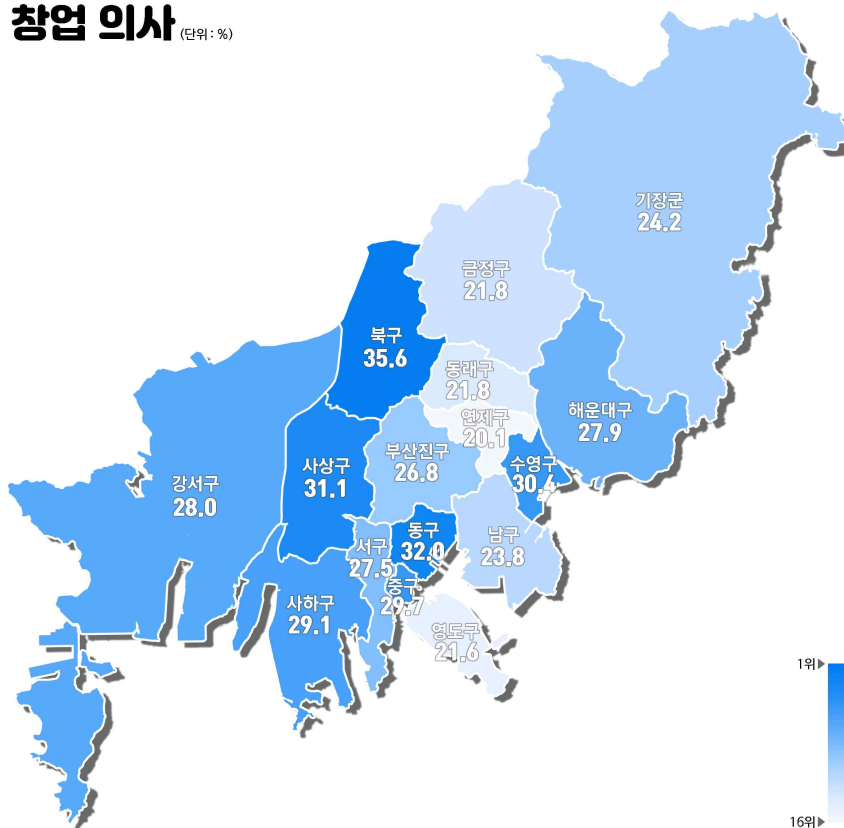
2. 창업 의사

➤ 지표 정의 : 장래 창업에 대한 의사를 밝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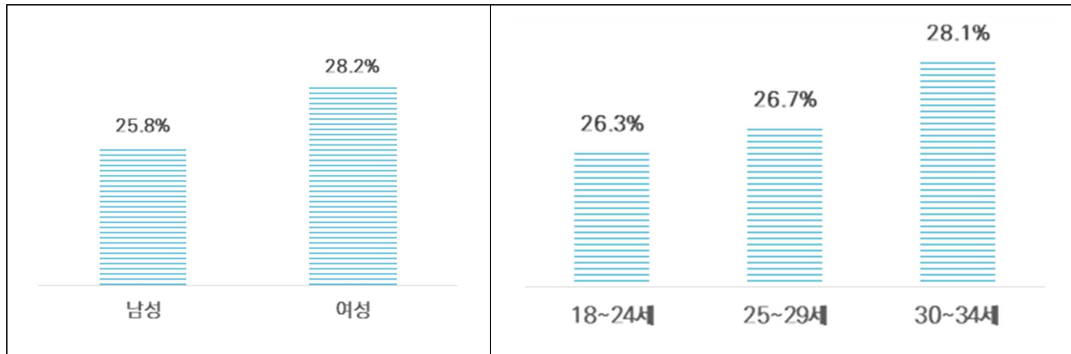
- 응답자의 27.0%는 장래 창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의사는 서부산(31.4%)이 높고, 동부산(24.4%)이 낮은 편
 - 구·군별로는 북구, 동구, 사상구 거주 청년들의 창업 의사가 비교적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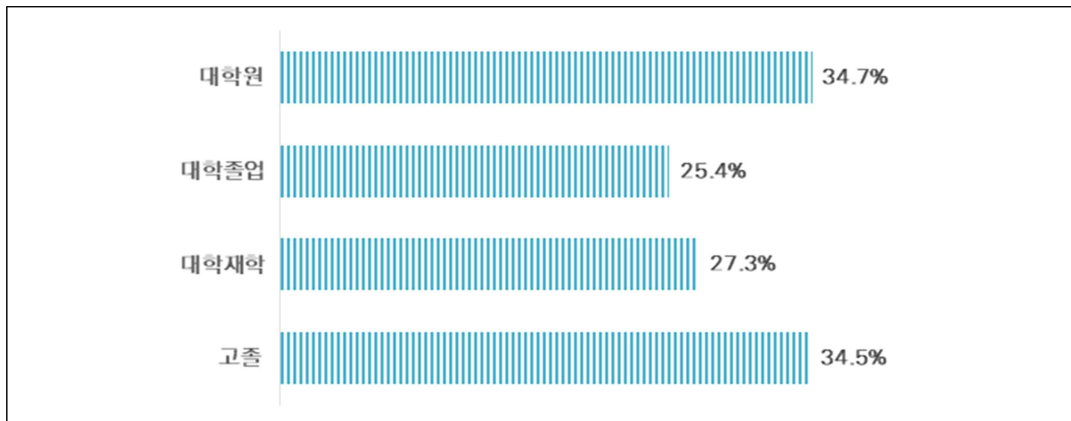
창업 의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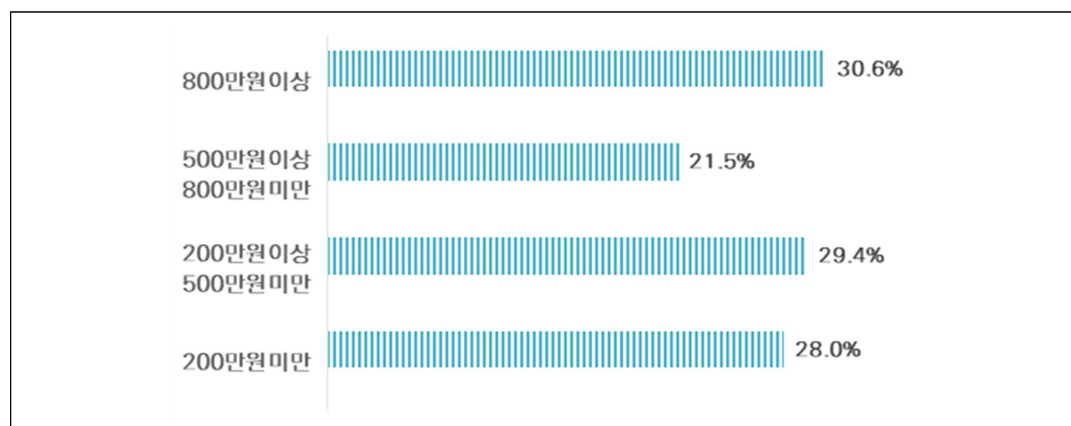
- 창업 의사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연령이 늘어날수록 창업 의사는 높았음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계층의 창업 의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고졸과 대학원에서 창업에 대한 의사가 높았음
 - 학력에 따른 창업 의사 비율이 U자형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학력에 따른 창업 선호 유형 등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창업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1) 창업 의사 결정요인: 어떤 청년이 창업을 희망하는가?

- 대학 졸업자, 학생의 창업 의사가 낮았음
- 서부산, 프리랜서, 울산/경남 출신의 창업 의사가 높았음
- ☞ 대학 졸업자, 학생은 창업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추정되는데,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새로운 경력설계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창업 의사를 높일 필요
- ☞ 울산/경남 출신 청년들이 대학 졸업 이후 부산에서 창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타지역 출신 창업가를 위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

〈표 3-2-1〉 창업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창업 의사 여부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27	0.086	1.135
연령	0.004	0.015	1.004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096	0.265	1.101
대학졸업	-0.535 **	0.179	0.586
대학원	-0.254	0.276	0.776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28	0.111	0.972
서부산	0.311 **	0.11	1.365
원도심	0.118	0.137	1.125
월 평균 가구소득	0.016	0.015	1.016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074	0.157	1.077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812 *	0.361	2.253
학생	-0.527 *	0.238	0.591
주부	-0.062	0.301	0.94
무직/준비	0.132	0.157	1.141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419 **	0.151	1.521
기타	0.382 †	0.213	1.465
(상수)	-0.995	0.491	0.37
카이제곱	51.160 ***		
Pseudo-R ² (McFadden)	0.015		
BIC	3526.164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창업 의사와 스트레스의 관계

- 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편
- ☞ 창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내 문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창업을 고려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표 3-2-2〉 창업 의사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28 ***	0.043
연령	0.023 **	0.008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277 *	0.136
대학졸업	0.092	0.095
대학원	0.411 **	0.146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54	0.054
서부산	0.091	0.056
원도심	0.053	0.068
월 평균 가구소득	-0.011	0.007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59 *	0.079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591 **	0.2
학생	0.197 †	0.118
주부	-0.262 †	0.151
무직/준비	0.258 **	0.079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307 ***	0.08
기타	0.217 †	0.112
창업 의사 (준거: 창업 의사 없음)		
창업 의사 있음	0.414 ***	0.047
(상수)	2.097 ***	0.245
F	13.688 ***	
Adj. R ²	0.068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창업 의사와 시간적 여유의 관계

- 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도 미래 창업과 관련된 활동들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표 3-2-3〉 창업 여부가 시간적 여유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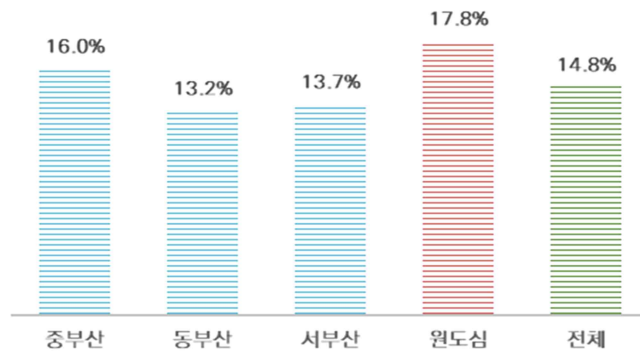
	시간적 여유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5 ***	0.086
연령	-0.083 ***	0.015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22	0.276
대학졸업	0.504 **	0.192
대학원	-0.126	0.296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13	0.108
서부산	-0.341 **	0.112
원도심	-0.498 ***	0.137
월 평균 가구소득	0.128 ***	0.015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382 *	0.159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391	0.406
학생	0.025	0.239
주부	-0.044	0.305
무직/준비	-0.326 *	0.159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429 **	0.162
기타	-0.523 *	0.227
창업 의사 (준거: 창업 의사 없음)		
창업 의사 있음	-0.683 ***	0.095
(상수)	8.788 ***	0.496
F	17.247 ***	
Adj. R ²	0.086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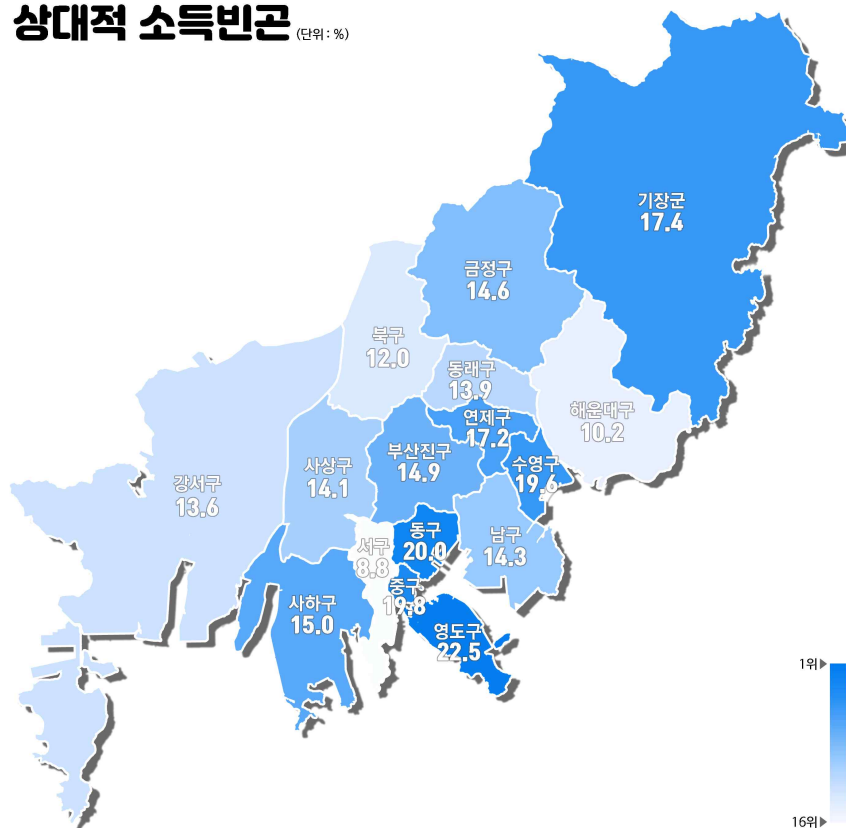
3. 상대적 소득 빈곤

지표 정의 :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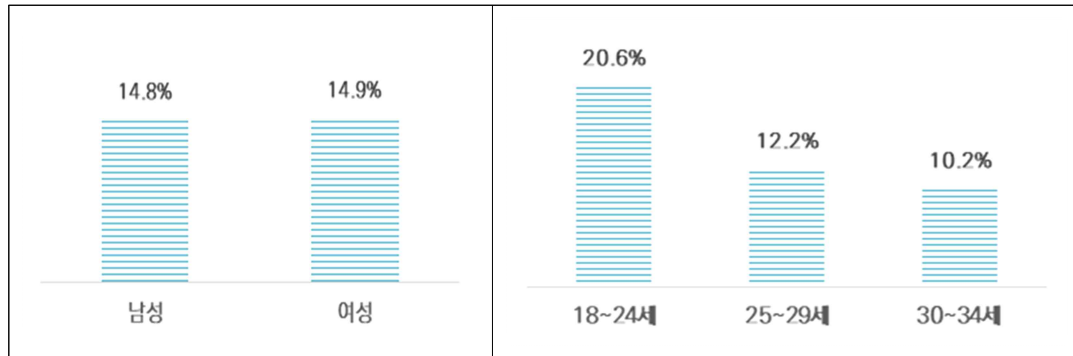
- 응답자의 14.8%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였음
 - 원도심(17.8%)의 비중이 높고, 동부산(13.2%)과 서부산(13.7%)의 비중이 낮은 편
 - 영도(22.5%), 동구(20.0%), 중구(19.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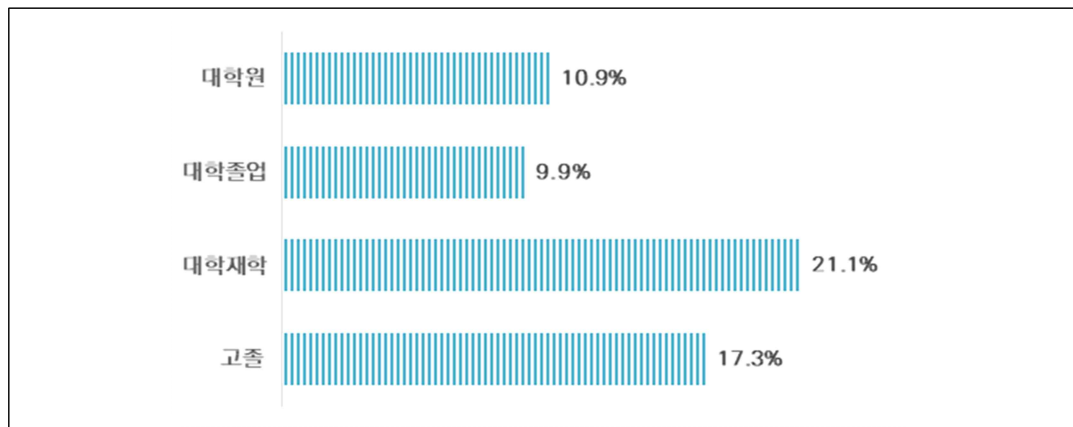
상대적 소득빈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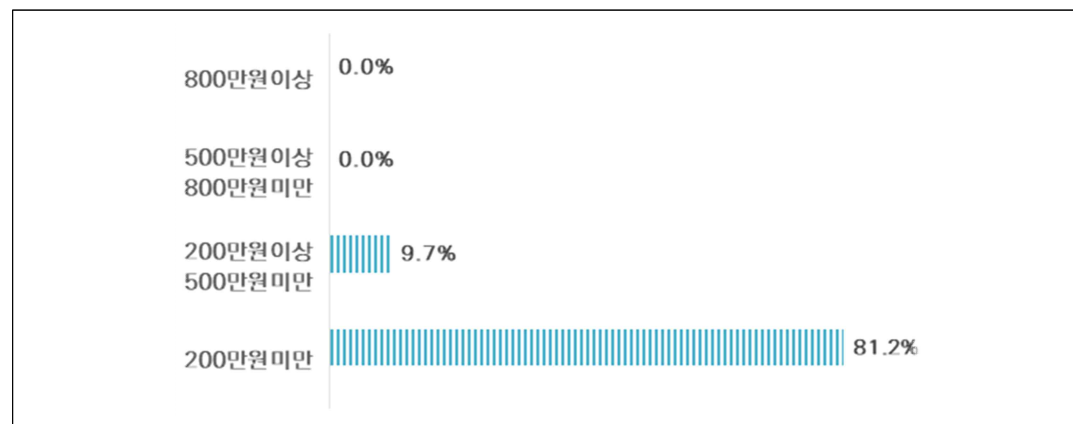
- 상대적 소득 빈곤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 소득 빈곤 비율이 높은 편



-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 소득 빈곤이 낮은 편
 - 대학 재학 상태에서 별다른 소득 확보가 어려워 경제적 궁핍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재학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81.2%는 상대적 소득 빈곤 상태임
 - 저소득 가구 청년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



1) 상대적 소득 빈곤 결정요인: 어떤 청년이 상대적 소득 빈곤 상태인가?

- 연령이 낮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 소득 빈곤 가능성 높은 편
 - 프리랜서에 비해 자영업자와 회사원이, 그리고 부산 출신 청년의 소득 빈곤 가능성이 높은 편
- ☞ 저소득 가구 청년에게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에 저소득가구 청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달 체계 필요

〈표 3-3-1〉 상대적 소득 빈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상대적 소득 빈곤 여부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81	0.206	0.834
연령	-0.081 *	0.035	0.922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533	0.564	1.704
대학졸업	-0.49	0.391	0.613
대학원	0.521	0.592	1.683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351	0.258	1.421
서부산	0.16	0.265	1.174
원도심	0.129	0.308	1.137
월 평균 가구소득	-2.469 ***	0.15	0.085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476	0.432	1.609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3.395 *	1.478	0.034
학생	-0.107	0.485	0.899
주부	0.633	0.667	1.883
무직/준비	0.249	0.368	1.283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1.035 **	0.328	0.355
기타	-0.8 †	0.454	0.449
(상수)	10.76	1.267	47108.16
카이제곱	1793.050 ***		
Pseudo-R ² (McFadden)	0.721		
BIC	828.724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상대적 소득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상대적 소득 빈곤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소득 빈곤 상태에 놓인 경우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표 3-3-2〉 상대적 소득 빈곤이 건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만족도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514 ***	0.078
연령	-0.082 ***	0.014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172	0.25
대학졸업	0.643 ***	0.174
대학원	0.236	0.268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177 †	0.098
서부산	-0.275 **	0.102
원도심	-0.457 ***	0.124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381 **	0.145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849 *	0.368
학생	-0.123	0.217
주부	0.034	0.277
무직/준비	-0.471 **	0.145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787 ***	0.146
기타	-0.855 ***	0.205
상대적 소득 빈곤 (준거: 부민층)		
빈곤층	-0.616 ***	0.109
(상수)	10.146 ***	0.438
F	13.493 ***	
Adj. R ²	0.063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상대적 소득 빈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상대적 소득 빈곤은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 청년세대의 소득 빈곤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 경제적 궁핍 상태에 놓인 청년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지원이 필요

〈표 3-3-3〉 상대적 소득 빈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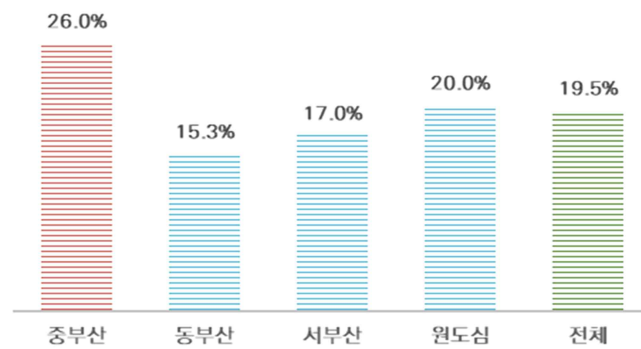
	우울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395 ***	0.04
연령	0.029 ***	0.007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163	0.129
대학졸업	-0.127	0.089
대학원	0.091	0.138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01	0.05
서부산	0.063	0.052
원도심	0.088	0.064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267 ***	0.074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049	0.189
학생	0.139	0.111
주부	0.047	0.142
무직/준비	0.359 ***	0.074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337 ***	0.075
기타	0.382 ***	0.105
상대적 소득 빈곤 (준거: 부민층)		
빈곤층	0.331 ***	0.056
(상수)	0.767 ***	0.225
F	16.908 ***	
Adj. R ²	0.079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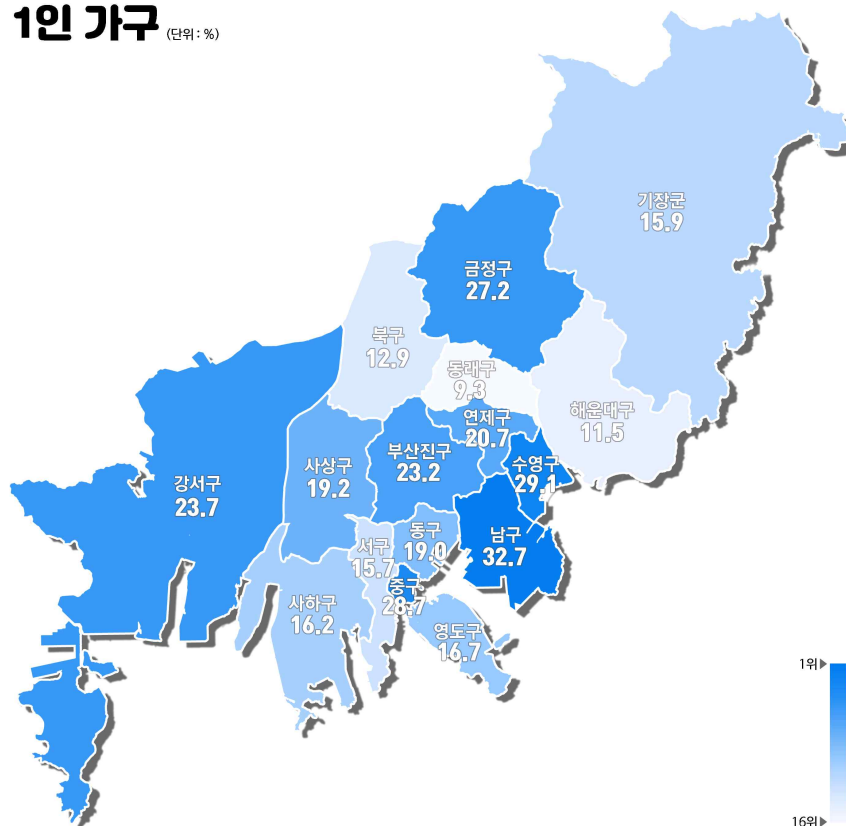
4. 1인 가구 비율

지표 정의 : 전체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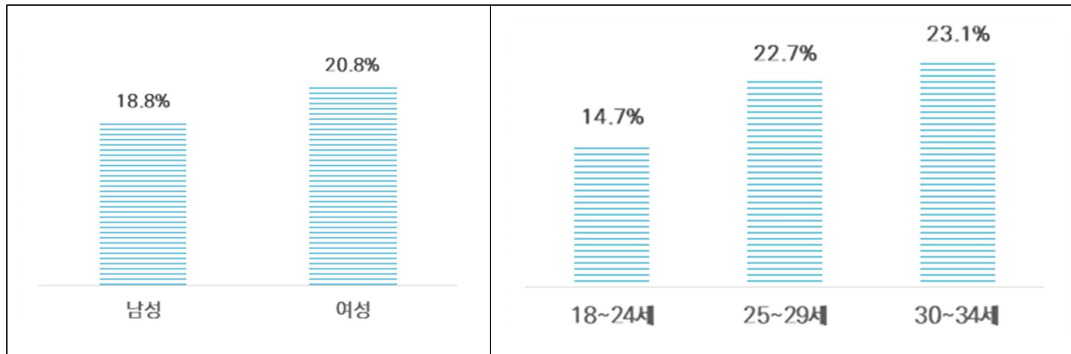
- 응답자의 19.5%가 '1인 가구'
- 중부산(26.0%)의 비중이 높고, 동부산(15.2%)의 비중이 낮은 편
- 대학가(남구, 수영구, 금정구)와 기업 밀집 지역(강서, 중구)의 비중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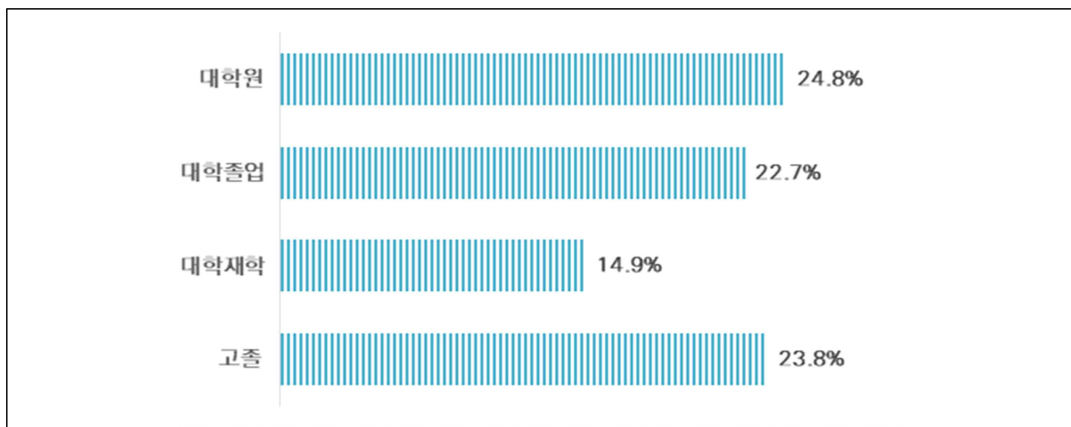
1인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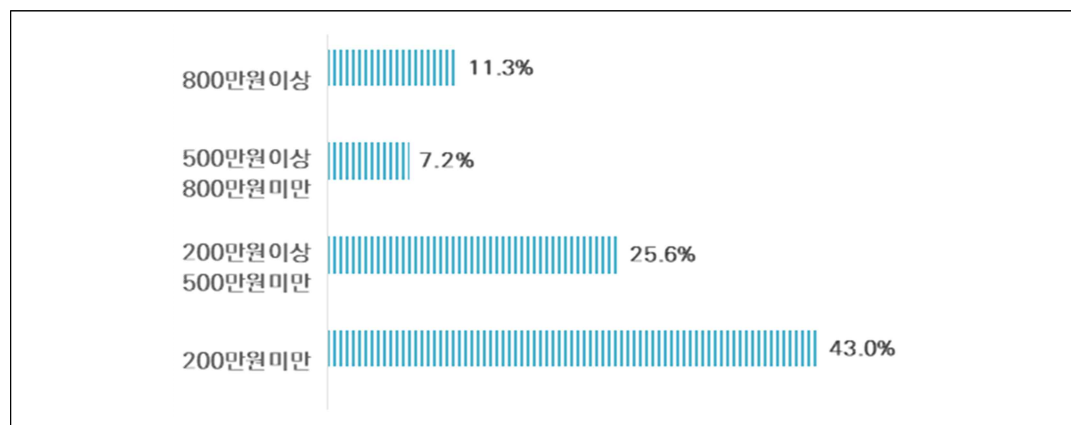
- 남정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음



- 대학 재학 중인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낮은 편
 - 경제적 자립이 1인 가구 형성의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편
 - 고소득자의 경우 가구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1) 1인 가구 결정요인: 어떤 청년이 1인 가구로 살아갈까?

- 연령이 높고, 울산/경남 출신 청년일수록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고, 무직/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 거주 지역의 경우 중부산이 서부산과 동부산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높음
- ☞ 타지역 출신의 고연령,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1인 가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적인 지원하기 위한 정책 필요
- ☞ 청년 선호 높은 공공시설 등을 계획할 때,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

〈표 3-4-1〉 1인 가구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인 가구 여부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16	0.109	1.123
연령	0.082 ***	0.02	1.085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609 †	0.334	0.544
대학졸업	-0.108	0.219	0.898
대학원	-0.353	0.368	0.703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498 ***	0.138	0.608
서부산	-0.421 **	0.141	0.656
원도심	-0.332 †	0.17	0.717
월 평균 가구소득	-0.279 ***	0.02	0.756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2.873 ***	0.37	0.057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322	0.498	0.724
학생	0.018	0.295	1.018
주부	-13.468	258.243	0
무직/준비	-0.419 *	0.186	0.658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2.239 ***	0.178	9.38
기타	1.633 ***	0.235	5.119
(상수)	-1.51	0.614	0.221
카이제곱	698.755 ***		
Pseudo-R ² (McFadden)	0.238		
BIC	2370.822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1인 가구와 주거 안전 인식

- 1인 가구일수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
- ☞ 1인 가구에 있어서 안전한 주거환경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
- ☞ 부산시가 추진한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 ‘청년 안심 주거지원 사업’ 등 1인 가구 청년의 주거환경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강화할 필요

〈표 3-4-2〉 1인 가구 여부가 안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안전에 대한 인식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079 *	0.032
연령	-0.011 *	0.006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088	0.101
대학졸업	0.141 *	0.07
대학원	0.032	0.109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5	0.04
서부산	-0.125 **	0.041
원도심	-0.213 ***	0.05
월 평균 가구소득	0.047 ***	0.006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36 *	0.06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131	0.149
학생	0.164 †	0.088
주부	-0.049	0.112
무직/준비	-0.009	0.058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132 *	0.062
기타	-0.221 **	0.084
가구원 수 (준거: 다인가구)		
1인 가구	-0.216 ***	0.044
(상수)	3.758 ***	0.182
F	16.709 ***	
Adj. R ²	0.083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1인 가구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 1인 가구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
- ☞ 사회경제적 지위는 결혼 및 출산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1인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회와 정책 제공이 필요
- ☞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같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재산형성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

〈표 3-4-3〉 1인 가구 여부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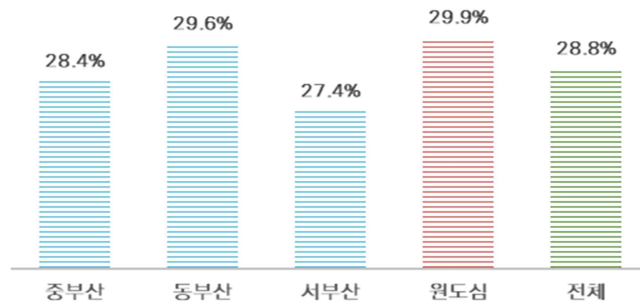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지위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18 **	0.038
연령	-0.032 ***	0.007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221 †	0.123
대학졸업	0.401 ***	0.085
대학원	0.577 ***	0.131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07	0.048
서부산	-0.044	0.05
원도심	-0.107 †	0.061
월 평균 가구소득	0.075 ***	0.007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5 *	0.072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346 †	0.18
학생	0.038	0.106
주부	0.037	0.136
무직/준비	-0.44 ***	0.071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107	0.075
기타	-0.155	0.102
가구원 수 (준거: 다인가구)		
1인 가구	-0.171 **	0.053
(상수)	3.943 ***	0.22
F	20.103 ***	
Adj. R ²	0.099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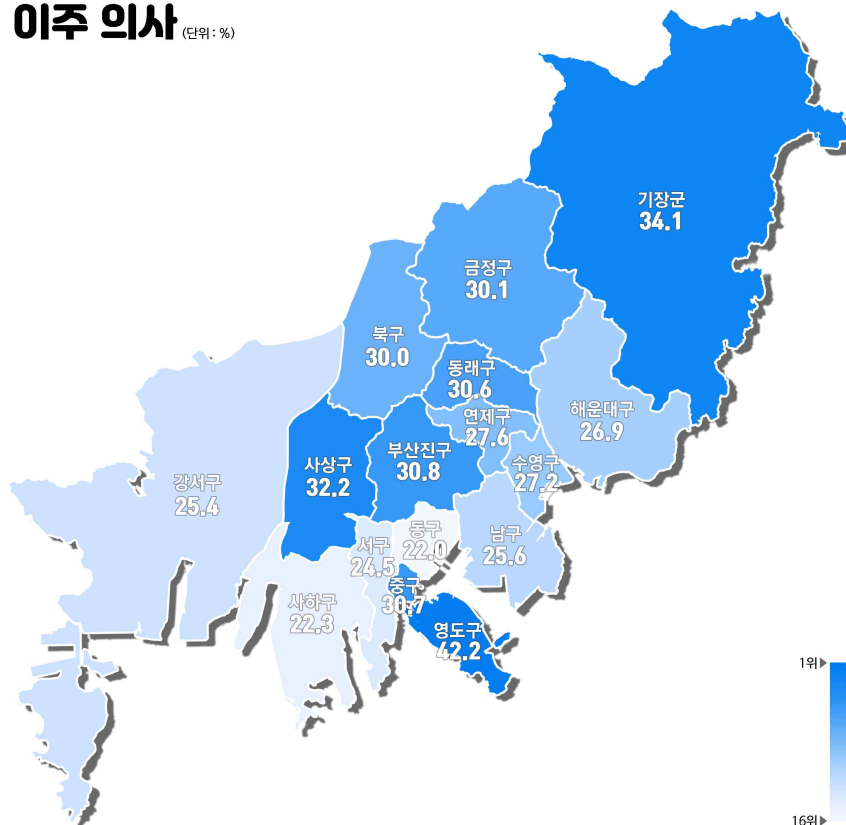
5. 이주 의사

지표 정의 : 부산을 떠나고 싶은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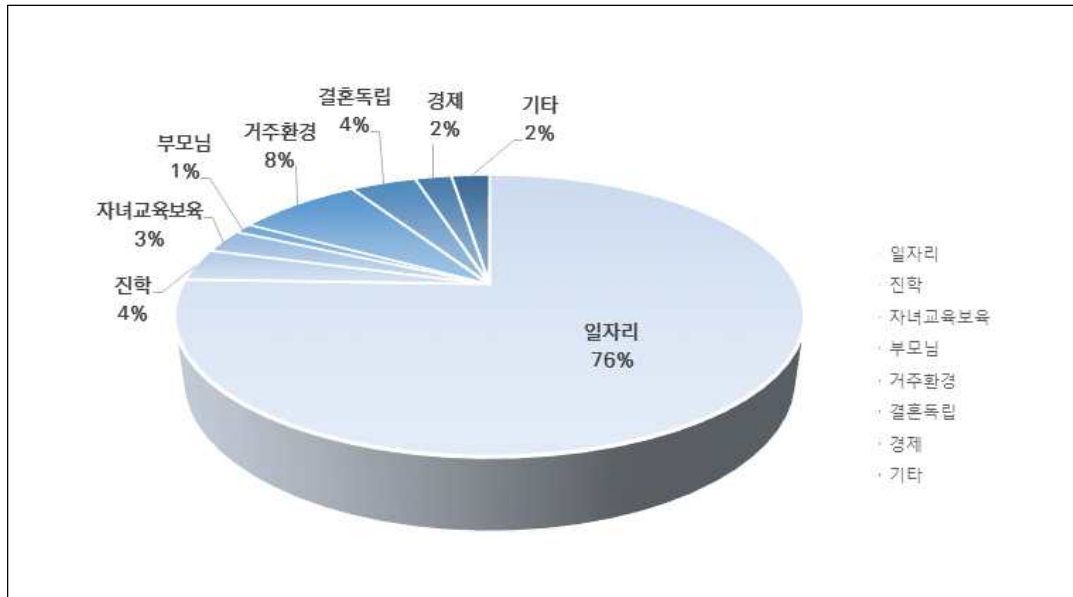
- 응답자의 28.8%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도심과 동부산 청년들의 이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영도(42.2%), 기장(34.1%), 사상(32.2%) 순으로 부산을 떠나고 싶은 의사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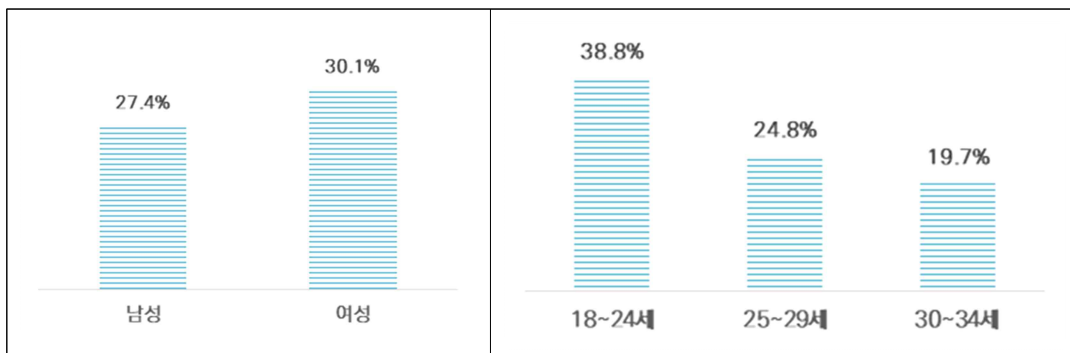
이주 의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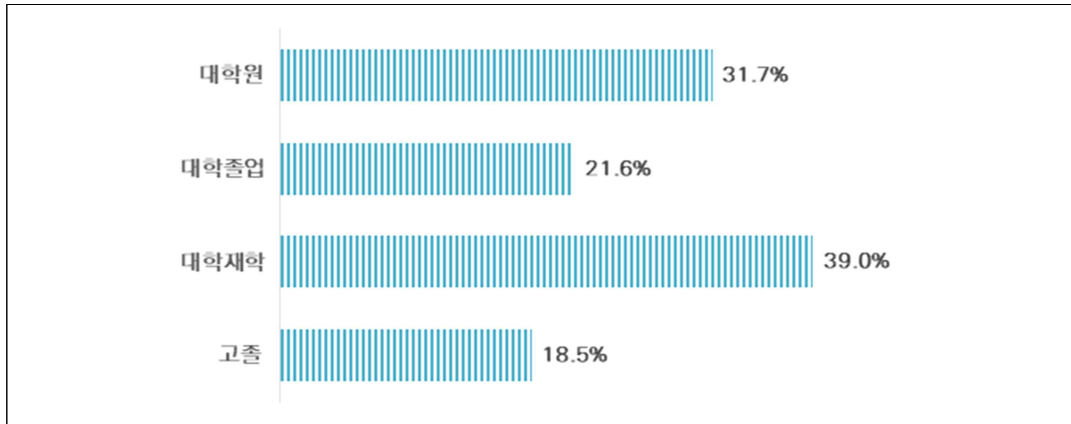
-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문제(76.0%)임
 - 청년의 지역 내 정주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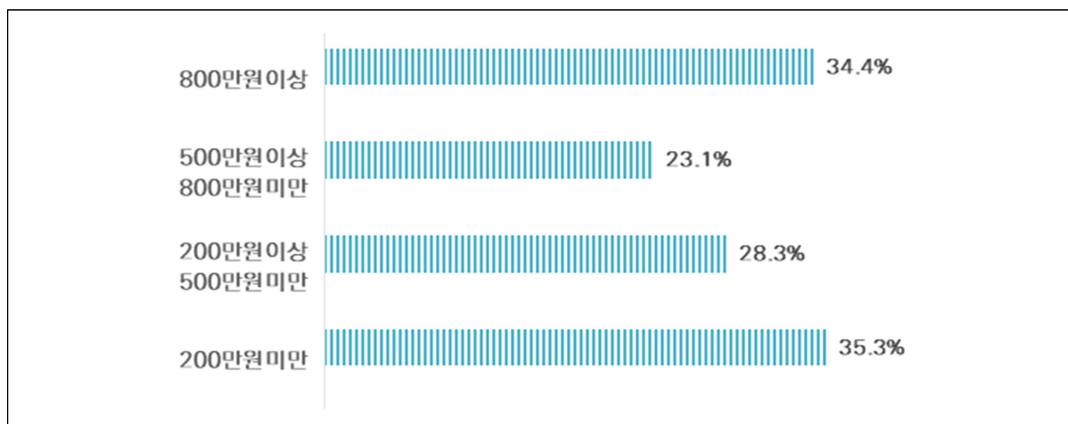
-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일수록 부산에서 떠나고자 하는 의사가 많았음
 - 지역 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부산 유치 및 산업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



- 대학 재학생의 이주 의사(39.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 지역 내 정주를 위해 대학 졸업 이후 직장을 구하기 위한 2차 유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



- 가구소득에 따른 부산 이주의사 비율은 U자형을 나타내어, 가구소득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 수록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음
 - 고소득 가구 구성원의 경우 부산을 떠나서 타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부산 이주 의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저소득 가구 구성원의 경우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목적으로 부산을 떠나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 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부산 유치 및 산업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



1) 이주 의사 결정요인: 어떤 청년이 부산을 떠나려고 하는가?

- 대학원 이상 학력, 미혼, 학생, 타지역 출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부산을 떠날 의사가 높은 반면, 부산의 문화 인프라 자원이 풍부하다고 인식할 경우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가 낮았음

☞ ‘일자리’로 인한 이주 의사가 높다는 점을 고려, 지산학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공공기관 유치, 지역 강소기업 발굴 등 적극적 일자리 정책 필요

〈표 3-5-1〉 이주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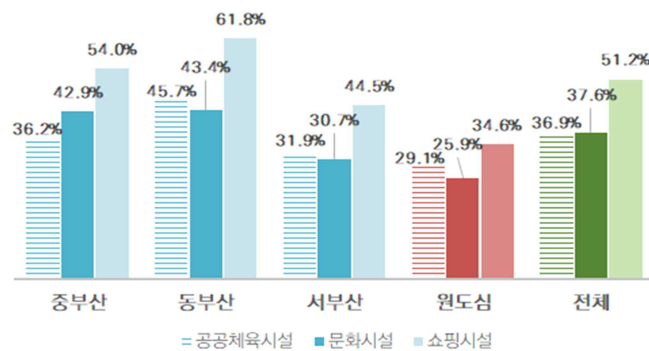
	이주의사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36	0.086	1.145
연령	-0.005	0.016	0.995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561 †	0.287	1.753
대학졸업	0.132	0.218	1.141
대학원	0.72 *	0.308	2.055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99	0.109	1.104
서부산	-0.063	0.115	0.939
원도심	0.007	0.138	1.007
월 평균 가구소득	0.028 †	0.015	1.028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584 **	0.201	0.558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293	0.441	0.746
학생	0.526 *	0.233	1.692
주부	-0.068	0.392	0.934
무직/준비	0.745 ***	0.153	2.107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427 **	0.152	1.533
기타	0.479 *	0.215	1.615
사회적 지위	-0.136 **	0.043	0.873
문화인프라 충분함	-0.138 ***	0.039	0.871
(상수)	-0.742	0.546	0.476
카이제곱	209.169 ***		
Pseudo-R ² (McFadden)	0.059		
BIC	3483.172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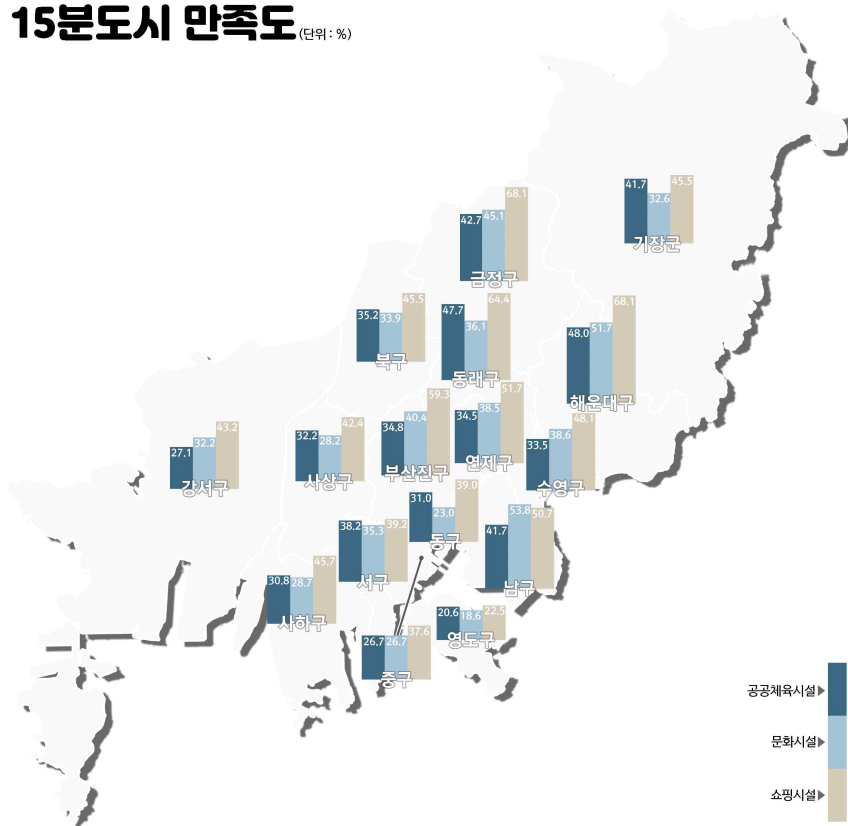
6. 15분 도시

지표 정의 : 거주지 15분 내에 접근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도⁹⁾

-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공공체육시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동부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원도심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지역별로 해운대, 금정, 동래의 만족도가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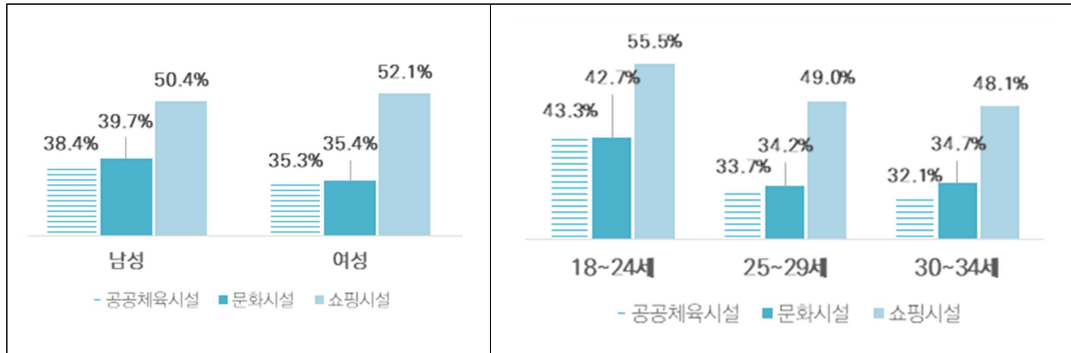


15분도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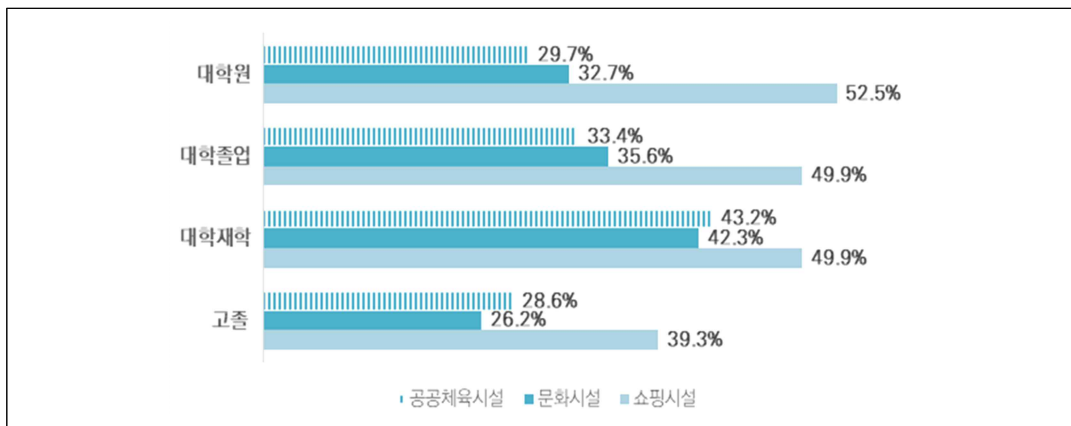


9) 거주지 인근 시설 중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쇼핑시설을 핵심지표로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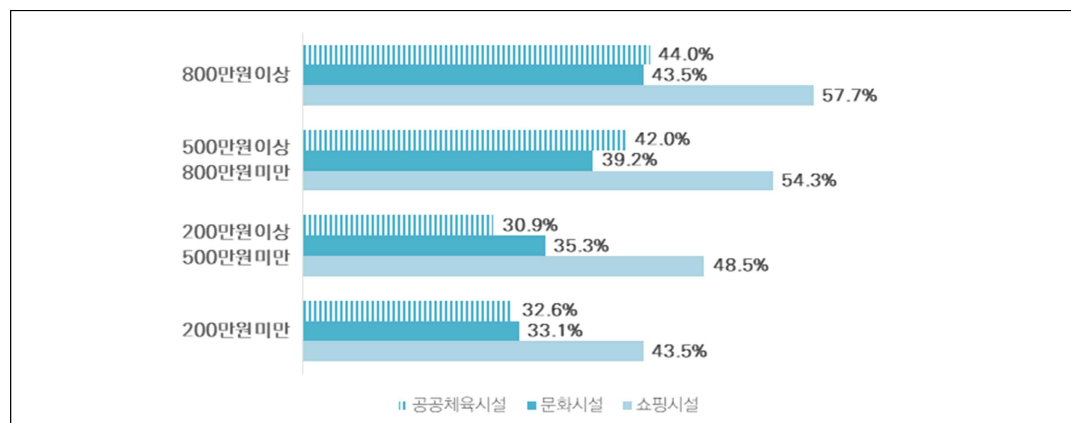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시설 만족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높았고, 쇼핑시설 만족도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편
- 연령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



-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의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쇼핑시설 만족도는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은 편



1) 거주지 인근(15분) 청년 선호 인프라 만족도 :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만족도는 동부산이 높았고, 서부산과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공체육시설 만족도가 높았음
- ☞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만족도가 낮은 서부산과 원도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 저소득 가구의 공공체육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접근성 및 운영 시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표 3-6-1〉 공공체육시설 만족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공공시설 만족도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01	0.08	0.904
연령	-0.016	0.014	0.984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127	0.263	1.135
대학졸업	0.153	0.185	1.165
대학원	0.002	0.288	1.002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329 ***	0.098	1.389
서부산	-0.244 *	0.106	0.783
원도심	-0.36 **	0.132	0.698
월 평균 가구소득	0.071 ***	0.014	1.074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32	0.149	1.141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145	0.393	0.865
학생	0.378 †	0.224	1.459
주부	0.07	0.285	1.072
무직/준비	-0.233	0.156	0.79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08	0.152	0.923
기타	-0.446 †	0.231	0.64
(상수)	-0.784	0.465	0.457
χ^2	128.979 ***		
Pseudo-R ² (McFadden)	0.033		
BIC	3896.008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거주지 인근(15분) 청년 선호 인프라 만족도 : 문화시설

- 학생, 대학 졸업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시설 만족도는 높았음
- 성별로는 여성, 지역으로는 서부산과 원도심의 문화시설 만족도가 낮았음
- ☞ 문화시설 확충 시 만족도가 낮은 서부산과 원도심을 우선적으로 고려
- ☞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여성의 문화시설 수요를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표 3-6-2〉 문화시설 만족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문화시설 만족도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74 *	0.08	0.84
연령	-0.023	0.014	0.978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11	0.269	1.117
대학졸업	0.41 *	0.19	1.507
대학원	0.379	0.286	1.461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56	0.097	0.946
서부산	-0.594 ***	0.105	0.552
원도심	-0.795 ***	0.134	0.451
월 평균 가구소득	0.048 ***	0.014	1.049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397 **	0.146	1.487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873 †	0.463	0.418
학생	0.509 *	0.225	1.664
주부	-0.077	0.282	0.926
무직/준비	-0.172	0.153	0.84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005	0.15	1.005
기타	-0.165	0.217	0.848
(상수)	-0.355	0.466	0.701
카이제곱	130.785 ***		
Pseudo-R ² (McFadden)	0.033		
BIC	3919.996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거주지 인근(15분) 청년 선호 인프라 만족도 : 쇼핑시설

- 쇼핑시설 만족도는 동부산이 높았고, 서부산과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학생 및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청년의 쇼핑시설 만족도가 높았음
- ☞ 쇼핑시설 등은 청년에게 ‘살기 좋은 도시’의 요건으로 중요한 차원임을 고려할 필요
- ☞ 민간의 영역으로 공적 지원이 쉽지는 않지만, 쇼핑시설 만족도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표 3-6-3〉 쇼핑시설 만족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쇼핑시설 만족도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091	0.078	1.096
연령	-0.022	0.014	0.978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011	0.251	1.011
대학졸업	0.289†	0.174	1.335
대학원	0.446†	0.268	1.562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28**	0.097	1.323
서부산	-0.387***	0.1	0.679
원도심	-0.818***	0.126	0.441
월 평균 가구소득	0.067***	0.013	1.069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317*	0.143	1.373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625†	0.379	0.535
학생	0.433*	0.217	1.541
주부	-0.062	0.273	0.94
무직/준비	0.152	0.143	1.165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159	0.146	0.853
기타	0.012	0.204	1.012
(상수)	-0.084	0.447	0.919
카이제곱	153.866 ***		
Pseudo-R ² (McFadden)	0.038		
BIC	4072.141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4) 시설 충분성과 청년의 행복

-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쇼핑시설 충분성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표 3-6-4〉 시설 충분성이 청년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년행복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214 **	0.066
연령	-0.061 ***	0.012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109	0.211
대학졸업	0.288 *	0.147
대학원	0.274	0.226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172 *	0.083
서부산	0.018	0.087
원도심	-0.062	0.106
월 평균 가구소득	0.077 ***	0.011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665 ***	0.122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071	0.31
학생	0.016	0.183
주부	0.074	0.233
무직/준비	-0.614 ***	0.12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222 †	0.124
기타	-0.228	0.173
문화시설 수 (준거: 불충분)		
충분함	0.243 **	0.077
공공체육시설 수 (준거: 불충분)		
충분함	0.342 ***	0.076
쇼핑시설 수 (준거: 불충분)		
충분함	0.383 ***	0.074
(상수)	8.154 ***	0.382
F	18.774 ***	
Adj. R ²	0.103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5) 시설 만족과 청년의 행복

-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쇼핑시설 만족도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표 3-6-5〉 시설 만족도가 청년행복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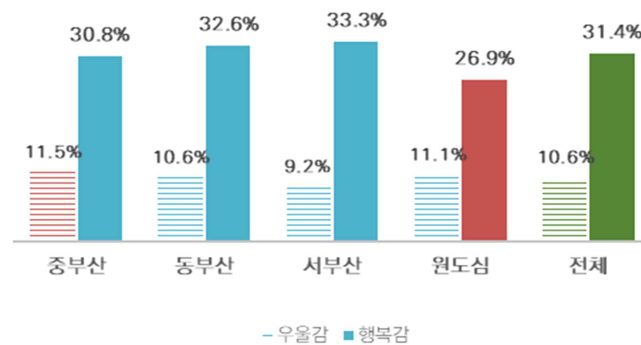
	청년행복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223 ***	0.066
연령	-0.064 ***	0.012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107	0.211
대학졸업	0.318 *	0.146
대학원	0.275	0.226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187 *	0.083
서부산	0.022	0.086
원도심	-0.05	0.106
월 평균 가구소득	0.072 ***	0.011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698 ***	0.122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091	0.31
학생	-0.014	0.182
주부	0.019	0.233
무직/준비	-0.618 ***	0.12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2	0.123
기타	-0.213	0.173
문화시설 만족도 (준거: 불만족)		
만족	0.198 *	0.08
공공시설 만족도 (준거: 불만족)		
만족	0.435 ***	0.081
쇼핑시설 만족도 (준거: 불만족)		
만족	0.363 ***	0.074
(상수)	8.311 ***	0.38
F	19.279 ***	
Adj. R ²	0.105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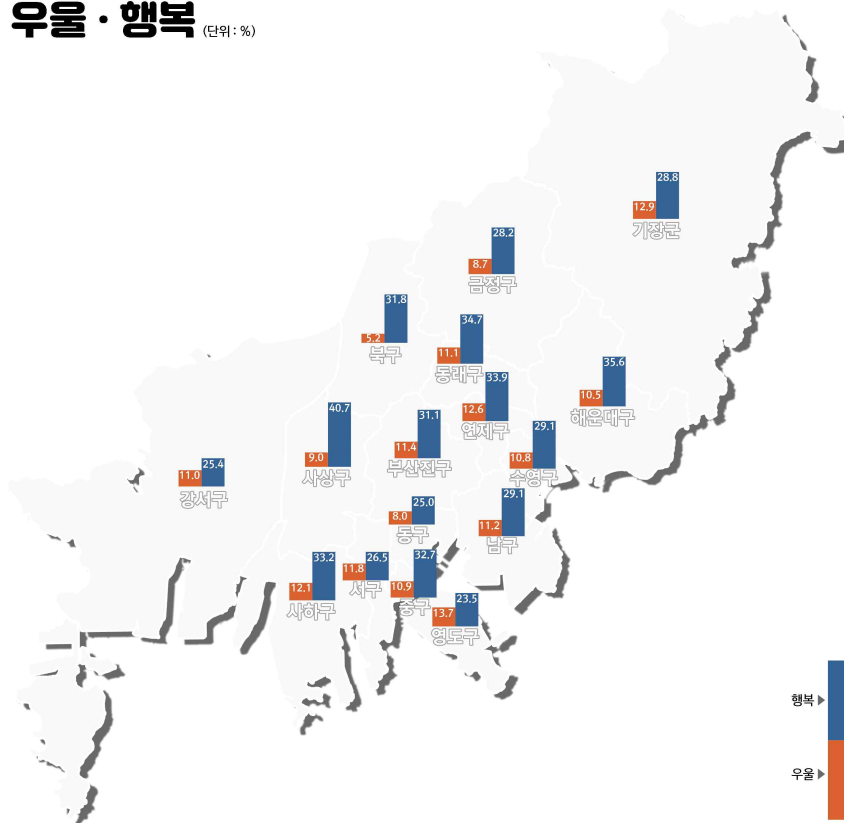
7. 주관적 행복

지표 정의 : 우울감 및 행복감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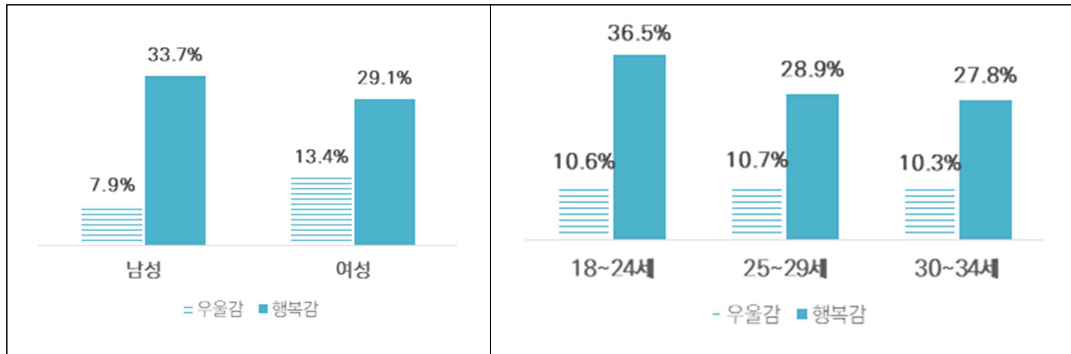
- 응답자의 10.6%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고, 31.4%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
 - 원도심은 우울감은 높은 편이고, 행복감은 낮은 편
 - 영도, 기장의 우울감 비율이 높고, 사상과 해운대의 행복감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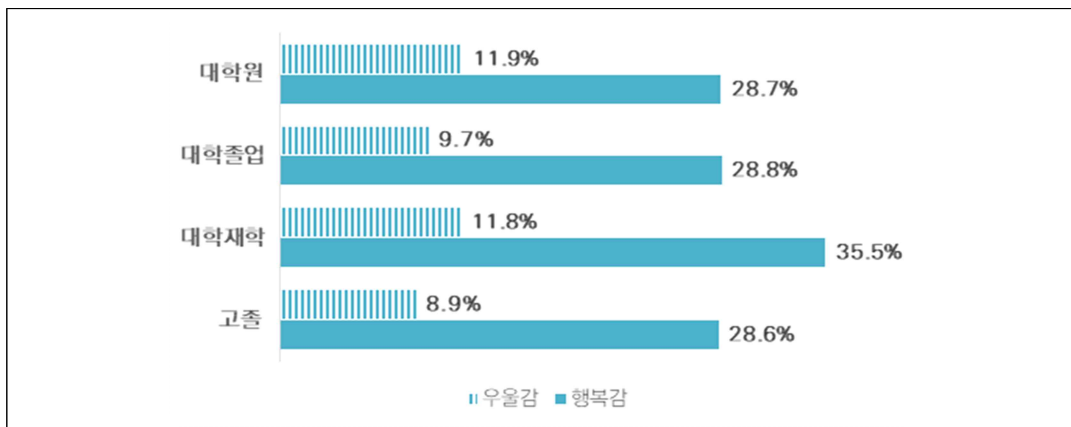
우울 · 행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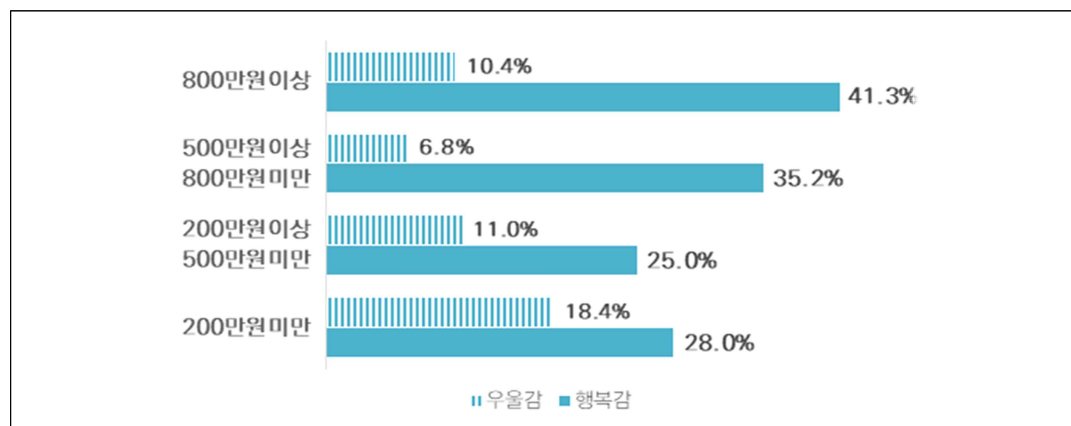
- 우울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행복감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편
- 연령에 따른 우울감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아짐



-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 이상의 우울감이 높은 편이고, 대학재학의 행복감이 높은 편
- 취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추정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은 편
-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우울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1) 주관적 행복(우울감): 어떤 청년이 우울한가?

- 여성, 미혼, 무직 그리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았음
- 부산 출신보다는 울산/경남 출신일수록 우울감이 높았음
- ☞ 우울감이 높은 집단이 관련 청년정책(청년 마음건강 지원, 마음건강 바우처)을 더 많이 활용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
- ☞ 우울감이 높은 고위험군의 경우 자발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병행될 필요

〈표 3-7-1〉 우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우울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614 ***	0.127	1.847
연령	0.043 †	0.023	1.044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219	0.394	1.244
대학졸업	-0.102	0.3	0.903
대학원	0.144	0.43	1.155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2	0.155	1.02
서부산	-0.164	0.167	0.849
원도심	0.014	0.193	1.014
월 평균 가구소득	-0.058 **	0.021	0.943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817 **	0.298	0.442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283	0.627	0.754
학생	0.216	0.325	1.241
주부	0.36	0.485	1.433
무직/준비	0.593 **	0.203	1.81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508 **	0.196	1.661
기타	0.362	0.293	1.437
(상수)	-3.403	0.734	0.033
카이제곱	71.185 ***		
Pseudo-R ² (McFadden)	0.036		
BIC	2048.164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주관적 행복(행복감): 어떤 청년이 행복한가?

- 남성, 기혼,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음
- ☞ 가구소득과 행복감 인식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 가구 청년, 소득이 작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보전 정책이 필요
- ☞ 부산시가 추진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저소득 가구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달체계를 강화

〈표 3-7-2〉 행복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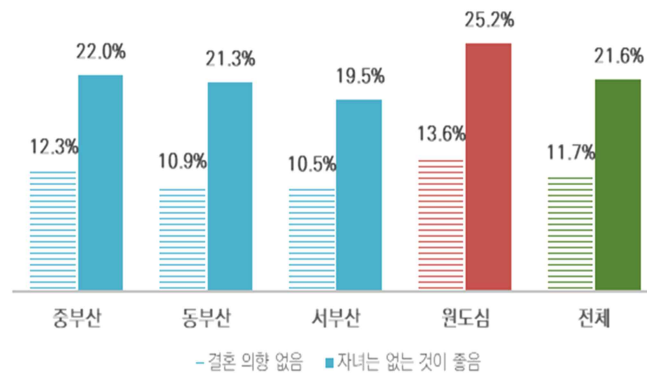
	행복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244 **	0.083	0.783
연령	-0.055 ***	0.015	0.946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113	0.273	1.12
대학졸업	0.096	0.191	1.101
대학원	0.051	0.293	1.052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12	0.104	1.012
서부산	0.049	0.108	1.05
원도심	-0.225	0.137	0.799
월 평균 가구소득	0.088 ***	0.014	1.092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883 ***	0.148	2.418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594	0.372	1.811
학생	0.06	0.233	1.061
주부	-0.07	0.282	0.932
무직/준비	-0.16	0.165	0.85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018	0.159	0.982
기타	0.033	0.224	1.034
(상수)	-0.014	0.483	0.986
카이제곱	117.984 ***		
Pseudo-R ² (McFadden)	0.032		
BIC	3694.927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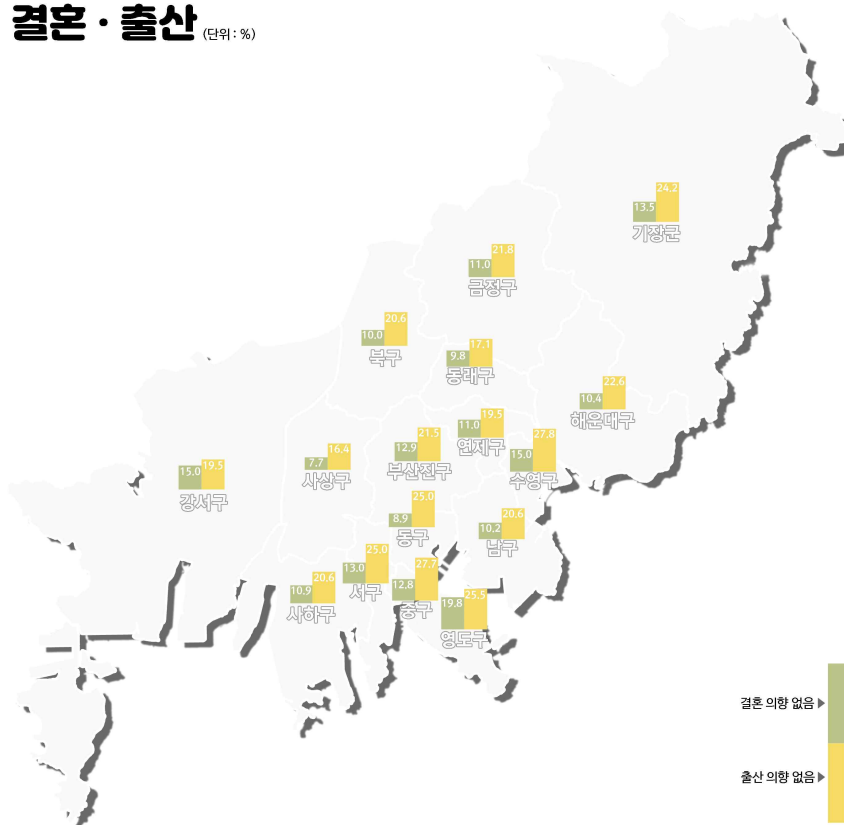
8. 결혼 및 출산 의향

지표 정의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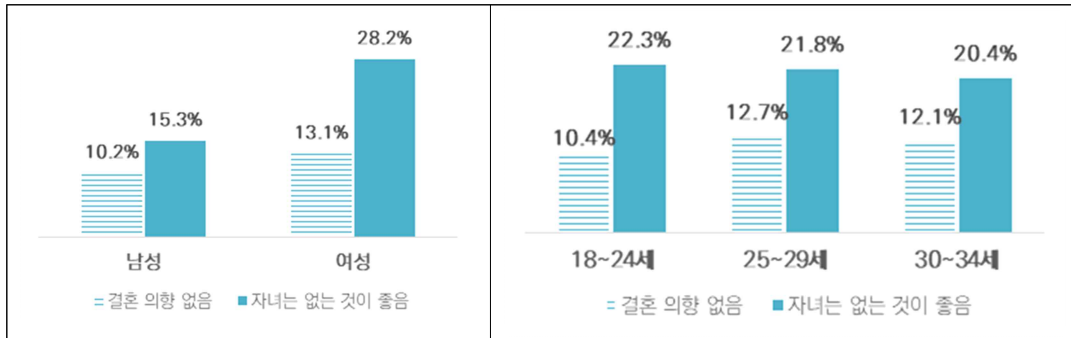
- 응답자의 11.7%는 결혼에 대한 의향이 없고, 21.6%는 출산 의향이 없음
 - 원도심(13.6%)의 비중이 높고, 서부산(10.5%)의 비중이 낮음
 - 가장, 영도, 사하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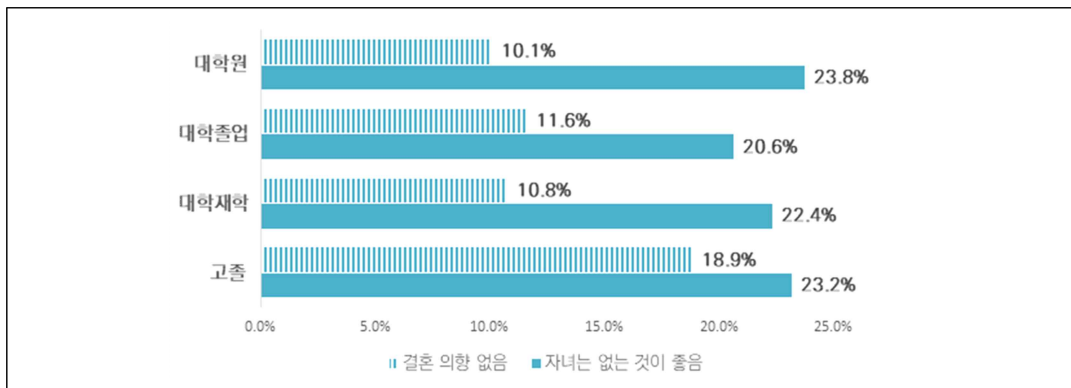
결혼 · 출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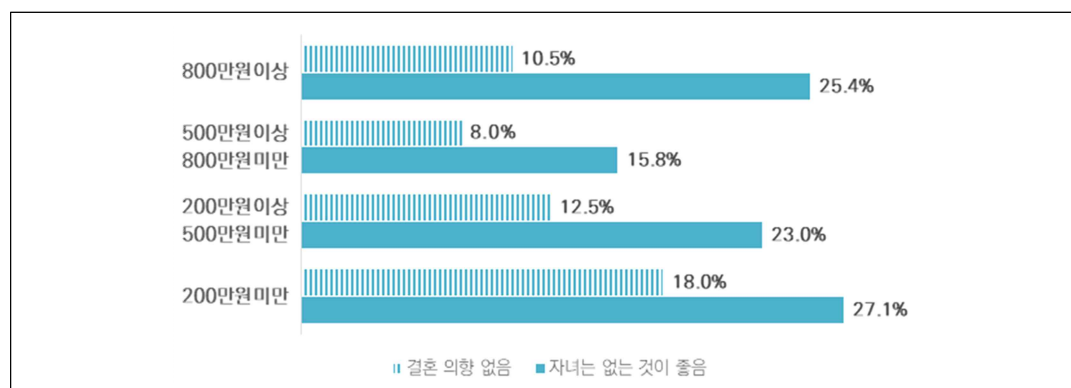
-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출산 의향이 없다는 비중이 높고, 성별 간 차이가 큰 편
 -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 의향이 낮은 편



- 고졸은 결혼 의향이 낮고, 대학원 이상은 출산 의향이 낮은 편
 - 결혼 의향은 고졸(18.9%)이 대학원 이상(10.1%)에 비해 없는 반면, 출산 의향은 대학원 이상(23.8%)과 고졸(23.2%)이 없는 편



-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낮은 편
 - 가구소득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수록 결혼과 자녀 의향이 없다는 비중이 U자형을 나타냄



1) 결혼 의향: 어떤 청년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일까?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결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부산지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
-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주거지원, 소득기회 증진 등이 필요
- ☞ 향후 청년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

〈표 3-8-1〉 결혼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의향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051	0.186	1.052
연령	-0.014	0.03	0.986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392	0.581	1.481
대학졸업	-0.419	0.276	0.658
대학원	-0.318	0.492	0.728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285	0.234	0.752
서부산	-0.308	0.243	0.735
원도심	0.049	0.276	1.05
월 평균 가구소득	-0.025	0.034	0.975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13.596	511.244	0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228	0.511	1.256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077	0.334	1.081
기타	-0.579	0.488	0.56
일자리 질 (준거: 보통일자리)			
좋은 일자리	-0.033	0.254	0.968
사회경제적 지위	-0.245 **	0.091	0.783
(상수)	-0.074	0.986	0.929
카이제곱	23.922 †		
Pseudo-R ² (McFadden)	0.027		
BIC	970.654		
사례수	1217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출산 의향: 어떤 청년이 아이 낳기를 꺼려할까?

- 여성, 미혼, 울산/경남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 출산 의향이 낮았음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출산 의향이 낮았음
- ☞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과 육아에 대한 부담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일하는 엄마를 위한 육아지원 사업과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
- ☞ 타지역 출신의 경우 출산 이후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 공동체 회복이 필요

〈표 3-8-2〉 출산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출산의향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472 ***	0.137	0.624
연령	-0.013	0.023	0.987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793 †	0.471	0.453
대학졸업	0.188	0.226	1.207
대학원	0.009	0.353	1.009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115	0.173	1.122
서부산	0.124	0.179	1.132
원도심	-0.159	0.209	0.853
월 평균 가구소득	-0.002	0.025	0.998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836 ***	0.224	2.307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333	0.393	0.717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583 *	0.234	0.558
기타	-0.055	0.308	0.946
일자리 질 (준거: 보통일자리)			
좋은 일자리	-0.126	0.177	0.881
사회경제적 지위	0.3 ***	0.068	1.349
(상수)	0.692	0.759	1.998
카이제곱	77.014 ***		
Pseudo-R ² (McFadden)	0.052		
BIC	1524.530		
사례수	1464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청년 행복감

- 결혼 의향이 낮을수록 출산 의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 의향이 높은 청년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행복감으로 추정됨
- 청년 주택 공급 사업 확대,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 주택 등 소득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

〈표 3-8-3〉 결혼 및 출산의향이 청년행복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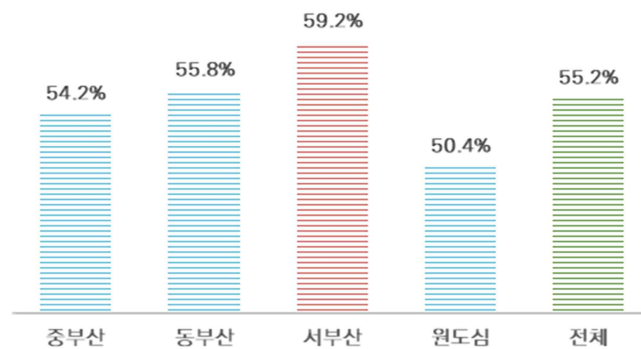
	청년행복	
	계수	표준오차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58 *	0.072
연령	-0.069 ***	0.013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356	0.234
대학졸업	0.353 *	0.164
대학원	0.334	0.258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127	0.09
서부산	-0.043	0.094
원도심	-0.102	0.113
월 평균 가구소득	0.08 ***	0.012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098	0.6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107	0.328
학생	-0.152	0.199
주부	0.855	1.037
무직/준비	-0.62 ***	0.127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135	0.133
기타	-0.219	0.186
결혼 의향 (준거: 결혼 의향 없음)		
결혼 의향 있음	-0.321 **	0.121
출산 의향 (준거: 출산 의향 없음)		
출산 의향 있음	0.542 ***	0.092
(상수)	8.327 ***	0.423
F	14.028 ***	
Adj. R ²	0.082	
사례수	262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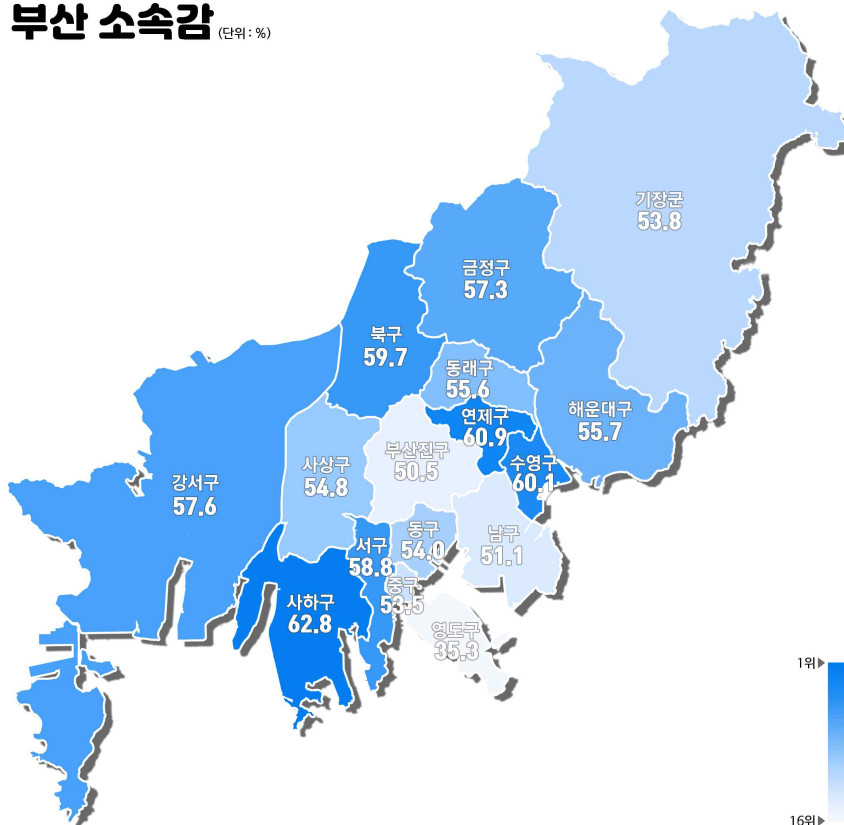
9. 지역에 대한 소속감

지표 정의 : 부산시민으로서 부산에 대한 소속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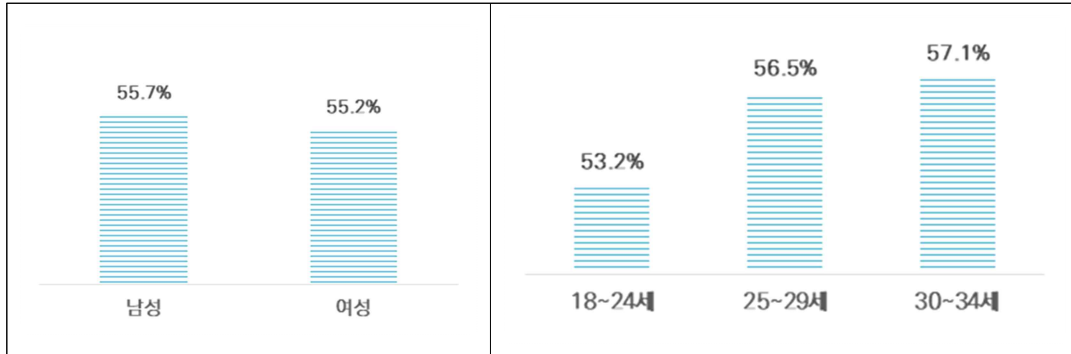
- 응답자의 55.2%는 부산시민으로서 부산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
 - 서부산(59.2%)이 높은 편이고, 원도심(50.4%)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사하(62.8%), 연제(60.9%), 수영(60.1%) 청년이 부산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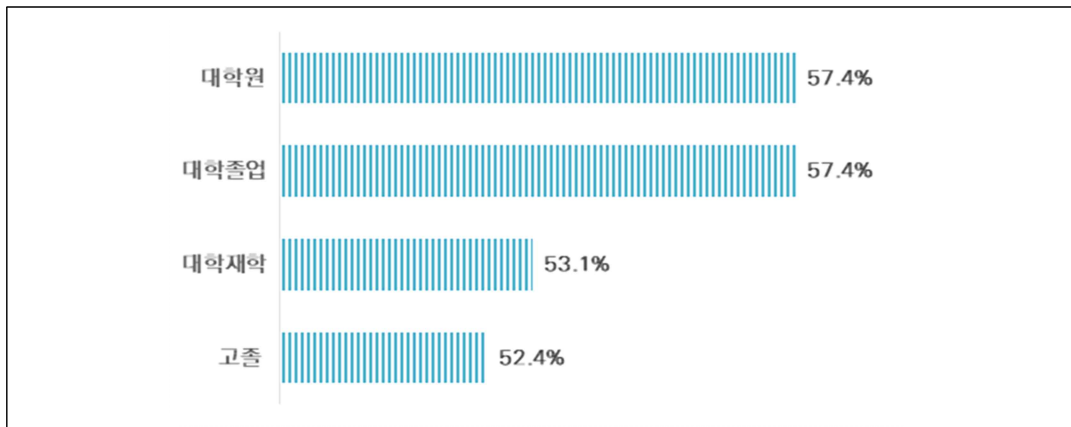
부산 소속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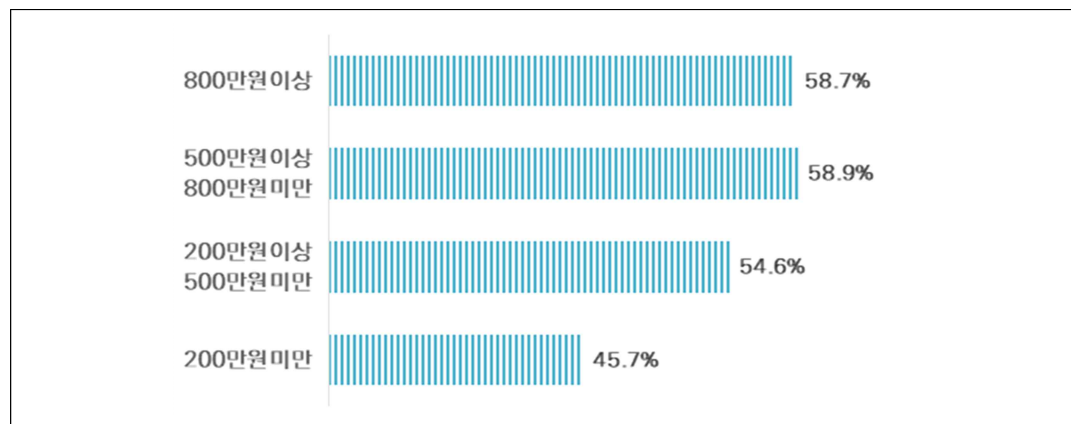
- 부산에 대한 소속감은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산에 대한 소속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부산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편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산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편



1) 지역에 대한 소속감: 어떤 청년이 부산에 더 소속감을 느낄까?

- 서부산, 월평균 가구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부산 시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았음
- ☞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 강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 경제사회적 지위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

〈표 3-9-1〉 부산 소속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산 소속감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013	0.077	1.013
연령	0.009	0.014	1.009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012	0.247	0.989
대학졸업	0.028	0.172	1.028
대학원	0.026	0.266	1.026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03	0.097	1.003
서부산	0.234 *	0.102	1.263
원도심	-0.056	0.123	0.946
월 평균 가구소득	0.034 *	0.014	1.034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47	0.143	0.863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092	0.36	0.912
학생	-0.125	0.214	0.882
주부	-0.149	0.272	0.861
무직/준비	0.118	0.144	1.125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197	0.144	0.822
기타	-0.318	0.202	0.728
사회경제적 지위	0.152 ***	0.038	1.164
문화시설(준거: 문화시설 불충분)			
문화시설 충분	0.193 *	0.091	1.213
공공시설(준거: 공공시설 불충분)			
공공시설 충분	0.054	0.09	1.055
쇼핑시설(준거: 쇼핑시설 불충분)			
쇼핑시설 충분	0.285 ***	0.086	1.33
(상수)	-1.063	0.469	0.345
카이제곱	92.533 ***		
Pseudo-R ² (McFadden)	0.023		
BIC	4133.712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10. 부산시 청년정책 참여경험

▶ 지표 정의 : 부산시 청년지원정책 신청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부산시 10대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도는 서부산 청년들이 높은 편
- 30~34세,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의 경우 청년 정책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편
- 가구소득 집단 200만 원 미만이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음

〈표 3-10-1〉 부산시 청년 정책 참여도가 높은(낮은) 집단

사업명	청년 정책 참여도 높은(낮은) 집단					
	구·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상위 1~3순위	하위 1~3순위				
청년다짐돌카드	강서구 중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금정구	남성	25~29세	대학 졸업	200만원 미만
부산일자리정보망	북구 사상구 금정구	서구 동래구 기장군	여성	25~29세	대학원 졸업 이상	200만원 미만
일하는 기쁨카드	사상구 북구 중구	서구 해운대구 금정구	남성	18~24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0만원 미만
드림옷장	북구 동래구 사상구	기장군 남구 수영구	남성	25~29세	대학원 졸업 이상	200만원 미만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강서구 사상구 북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남성	18~24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0만원 미만
청년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북구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남성	18~24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0만원 미만
청년월세지원	사상구 중구 북구	연제구 해운대구 동래구	남성	18~24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0만원 미만
기쁨두배통장	중구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사상구 해운대구	여성	25~29세	대학원 졸업 이상	200만원 미만
부산청년플랫폼	강서구 사상구 수영구	서구 동래구 기장군	여성	25~29세	대학원 졸업 이상	200만원 미만

1) 정책참여: 청년 디딤돌 카드 신청 및 선정 결정 요인

- 여성, 저소득 가구, 무직(취업 준비), 서부산과 원도심, 부울경 지역 외 출신 청년일수록 청년디딤돌 카드 신청 경험이 높았음
- 무직/취업 준비 중인 청년, 부울경 지역 외 출신 청년의 선정 경험이 높았음

〈표 3-10-2〉 청년 디딤돌 카드 신청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청년 디딤돌 카드 신청 경험			청년 디딤돌 카드 선정 경험		
	계수	표준오차	승산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288 *	0.125	0.75	0.178	0.198	1.195
연령	-0.037 †	0.022	0.964	0.055	0.034	1.056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468	0.382	1.597	0.669	0.711	1.953
대학졸업	0.479	0.297	1.615	0.892	0.607	2.439
대학원	0.12	0.417	1.127	0.421	0.765	1.524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2	0.168	1.02	-0.152	0.278	0.859
서부산	0.688 ***	0.16	1.99	0.487 †	0.249	1.628
원도심	0.451 *	0.192	1.57	0.426	0.29	1.532
월 평균 가구소득	-0.045 *	0.022	0.956	0.003	0.034	1.003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28	0.234	0.88	-0.813 †	0.431	0.443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424	0.475	1.528	-0.548	1.044	0.578
학생	-0.267	0.31	0.766	-0.074	0.493	0.928
주부	0.325	0.424	1.384	0.909	0.633	2.483
무직/준비	0.684 ***	0.186	1.982	0.789 **	0.256	2.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249	0.227	1.282	0.142	0.359	1.152
기타	0.915 ***	0.265	2.497	0.785 *	0.371	2.192
(상수)	-0.445	0.718	0.641	-5.132	1.204	0.006
카이제곱	71.628 ***			43.589 ***		
Pseudo-R² (McFadden)	0.042			0.051		
BIC	1758.496			932.709		
사례수	150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정책참여: 부산일자리정보망 이용 결정요인

- 대학졸업, 서부산, 무직/취업 준비 중, 미혼, 부울경 이외 지역 출신일수록 부산일자리정보망 이용이 높음
- ☞ 부울경 이외 지역 출신들의 이용 비율이 높는데, 취업관련 정보의 채널이 많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표 3-10-3〉 일자리정보망 이용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자리정보망 이용 경험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076	0.12	1.079
연령	-0.029	0.022	0.971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2	0.375	0.818
대학졸업	0.627 *	0.283	1.872
대학원	0.724 †	0.394	2.062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26	0.156	0.974
서부산	0.585 ***	0.153	1.795
원도심	-0.108	0.192	0.898
월 평균 가구소득	-0.044 *	0.021	0.957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435 *	0.22	0.647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977 †	0.535	2.656
학생	-0.046	0.317	0.955
주부	-0.379	0.453	0.684
무직/준비	0.669 ***	0.193	1.95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354	0.231	1.424
기타	0.684 *	0.273	1.981
(상수)	-0.143	0.698	0.867
카이제곱	96.496 ***		
Pseudo-R ² (McFadden)	0.054		
BIC	1803.452		
사례수	136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정책참여: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결정요인

- 여성일수록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이 낮고, 울산/경남 출신 청년들의 신청이 많음
- 급여 만족도가 낮을수록 신청이 많았음
- ☞ 일하는 기쁨카드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복지 지원 목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비교적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판단됨

〈표 3-10-4〉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경험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589 *	0.299	0.555
연령	-0.011	0.049	0.989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421	1.066	0.656
대학졸업	-0.543	0.419	0.581
대학원	-0.007	0.818	0.993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264	0.381	1.302
서부산	0.442	0.361	1.555
원도심	-0.205	0.519	0.814
월 평균 가구소득	0.056	0.059	1.058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84	0.429	1.201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587	0.973	1.798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1.49 **	0.52	4.436
기타	1.161 *	0.59	3.192
급여만족도	-0.263 *	0.118	0.768
(상수)	0.174	1.674	1.19
카이제곱	25.702 *		
Pseudo-R ² (McFadden)	0.078		
BIC	390.179		
사례수	275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4) 정책참여: 드림옷장 신청 결정요인

- 서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드림옷장 신청 경험이 많았음
- ☞ 서부산 청년들의 경우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표 3-10-5〉 드림옷장 신청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드림옷장 신청 경험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29	0.132	0.879
연령	-0.046 †	0.024	0.955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605	0.39	0.546
대학졸업	0.077	0.295	1.08
대학원	0.241	0.387	1.272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7	0.171	1.073
서부산	0.534 **	0.167	1.706
원도심	0.283	0.21	1.327
월 평균 가구소득	0.004	0.022	1.004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89	0.24	1.209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176	0.548	1.192
학생	-0.043	0.326	0.958
주부	-0.719	0.515	0.487
무직/준비	0.06	0.207	1.061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131	0.238	1.14
기타	0.466 †	0.276	1.594
(상수)	0.441	0.763	1.554
카이제곱	32.802 **		
Pseudo-R ² (McFadden)	0.023		
BIC	1531.685		
사례수	1139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5) 정책참여: 행복주택 신청 및 선정 결정요인

- 서부산, 부산 외부 출신일수록 행복주택 신청 경험이 많았고, 대학 졸업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청 경험이 적었음
- 행복주택 선정 경험은 부산 외부 출신일수록 선정 경험이 많았음
- ☞ 행복주택의 신청 기준(평균 소득의 80~100%)에 충족하는 청년들이 주로 서부산에 많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표 3-10-6〉 행복주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행복주택 신청 경험			행복주택 선정 경험		
	계수	표준오차	승산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265 †	0.143	0.767	0.024	0.324	1.025
연령	-0.041	0.026	0.96	0.024	0.06	1.024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697 †	0.421	0.498	-0.552	1.034	0.576
대학졸업	-0.535 *	0.263	0.586	0.249	0.765	1.283
대학원	-0.495	0.45	0.61	-0.028	1.074	0.972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47	0.19	0.954	-0.18	0.463	0.835
서부산	0.616 ***	0.176	1.852	0.67 †	0.385	1.954
원도심	0.04	0.231	1.041	-0.113	0.545	0.893
월 평균 가구소득	-0.095 ***	0.025	0.91	-0.079	0.058	0.924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58	0.245	1.171	-1.55	1.041	0.212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054	0.601	1.056	0.493	1.08	1.637
학생	0.142	0.395	1.152	0.755	0.852	2.128
주부	-0.428	0.533	0.652	-13.46 6	968.68	0
무직/준비	-0.125	0.267	0.882	0.789 †	0.459	2.202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1.091 ***	0.227	2.977	0.97 *	0.46	2.639
기타	0.937 **	0.298	2.552	1.711 ***	0.472	5.532
(상수)	0.522	0.809	1.685	-4.3	1.924	0.014
카이제곱	80.736 ***			33.731 **		
Pseudo-R ² (McFadden)	0.057			0.087		
BIC	1461.050			479.353		
사례수	1479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6) 정책참여: 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및 선정 결정요인

- 여성, 대학 졸업자의 신청이 작았고, 서부산, 기혼, 저소득가구, 부울경 이외 지역 출신자의 신청이 많았음
- 서부산 및 회사원일수록 청년 머물자리론 선정이 높았음

〈표 3-10-7〉 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경험			청년 머물자리론 선정 경험		
	계수	표준오차	승산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453 **	0.15	0.635	0.138	0.27	1.148
연령	-0.007	0.026	0.993	-0.019	0.047	0.981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083	0.4	0.921	1.298 †	0.678	3.663
대학졸업	-0.817 **	0.258	0.442	-0.461	0.442	0.631
대학원	-0.851 †	0.436	0.427	-0.074	0.675	0.929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105	0.201	0.9	-0.566	0.422	0.568
서부산	0.672 ***	0.183	1.957	0.65 *	0.318	1.915
원도심	0.096	0.234	1.1	0.053	0.426	1.054
월 평균 가구소득	-0.088 **	0.027	0.916	-0.122 *	0.052	0.885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633 **	0.215	1.883	0.263	0.369	1.301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055	0.593	1.057	-0.478	1.065	0.62
학생	-0.333	0.382	0.717	-2.42 ***	0.706	0.089
주부	0.445	0.396	1.56	-0.272	0.687	0.762
무직/준비	-0.454	0.314	0.635	-1.488 *	0.677	0.226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067	0.28	1.07	-0.121	0.498	0.886
기타	0.934 **	0.299	2.546	-0.057	0.629	0.944
(상수)	-0.227	0.812	0.797	-1.396	1.456	0.247
카이제곱	85.627 ***			36.400 **		
Pseudo-R² (McFadden)	0.065			0.070		
BIC	1360.641			603.714		
사례수	137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7) 정책참여: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및 선정 결정요인

- 여성,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이 작았고, 서부산, 부산 출신이 아닌 청년의 신청이 많았음
-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선정되지 않았고, 부산 출신이 아닌 청년이 많이 선정되었음

〈표 3-10-8〉 청년 월세지원 신청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청년 월세지원 신청 경험			청년 월세지원 선정 경험		
	계수	표준오차	승산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396 **	0.138	0.673	-0.098	0.262	0.907
연령	-0.041	0.025	0.96	-0.013	0.048	0.987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436	0.395	0.647	-0.457	0.709	0.633
대학졸업	-0.313	0.279	0.731	-0.545	0.512	0.58
대학원	-0.46	0.431	0.631	-1.764	1.135	0.171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118	0.182	0.888	0.022	0.33	1.022
서부산	0.393 *	0.172	1.482	-0.138	0.34	0.872
원도심	0.148	0.21	1.159	-0.02	0.393	0.98
월 평균 가구소득	-0.089 ***	0.023	0.915	-0.128 **	0.046	0.879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87	0.266	0.829	-1.784 †	1.03	0.168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17	0.592	0.844	-0.104	1.072	0.901
학생	0.023	0.35	1.023	-0.129	0.642	0.879
주부	-0.627	0.657	0.534	-12.77 6	647.657	0
무직/준비	0.332	0.224	1.394	0.521	0.386	1.684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1.109 ***	0.206	3.032	1.426 ***	0.321	4.161
기타	0.902 ***	0.266	2.466	0.986 *	0.443	2.679
(상수)	0.553	0.791	1.739	-1.54	1.486	0.214
카이제곱	86.720 ***			50.735 ***		
Pseudo-R ² (McFadden)	0.058			0.091		
BIC	1528.826			627.916		
사례수	1450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8) 정책참여: 기쁨두배 통장 인지도 결정요인

- 여성이 기쁨두배 통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음
- 동부산, 고소득 가구, 기혼, 학생일수록 인지도가 낮았음
- ☞ 소득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산 형성 관련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가 낮은 결과로 해석됨

〈표 3-10-9〉 부산시 기쁨두배 통장 인지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산시 기쁨두배 통장 인지도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62 *	0.078	1.176
연령	0.025 †	0.014	1.025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065	0.246	0.937
대학졸업	0.187	0.17	1.206
대학원	0.509 †	0.267	1.664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233 *	0.099	0.792
서부산	-0.107	0.102	0.899
원도심	0.067	0.124	1.07
월 평균 가구소득	-0.034 *	0.013	0.967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373 **	0.142	0.689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023	0.365	1.024
학생	-0.613 **	0.214	0.542
주부	-0.365	0.272	0.694
무직/준비	-0.166	0.141	0.847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176	0.147	1.192
기타	0.267	0.207	1.307
(상수)	-0.423	0.448	0.655
카이제곱	189.076 ***		
Pseudo-R ² (McFadden)	0.046		
BIC	4014.735		
사례수	29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9) 정책참여: 부산청년 플랫폼 이용 경험 결정요인

-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년플랫폼에 대한 이용 경험이 적었고, 부울경 이외 출신 청년의 관심이 높았음
- ☞ 부울경 이외 출신 청년의 경우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공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3-10-10〉 부산청년 플랫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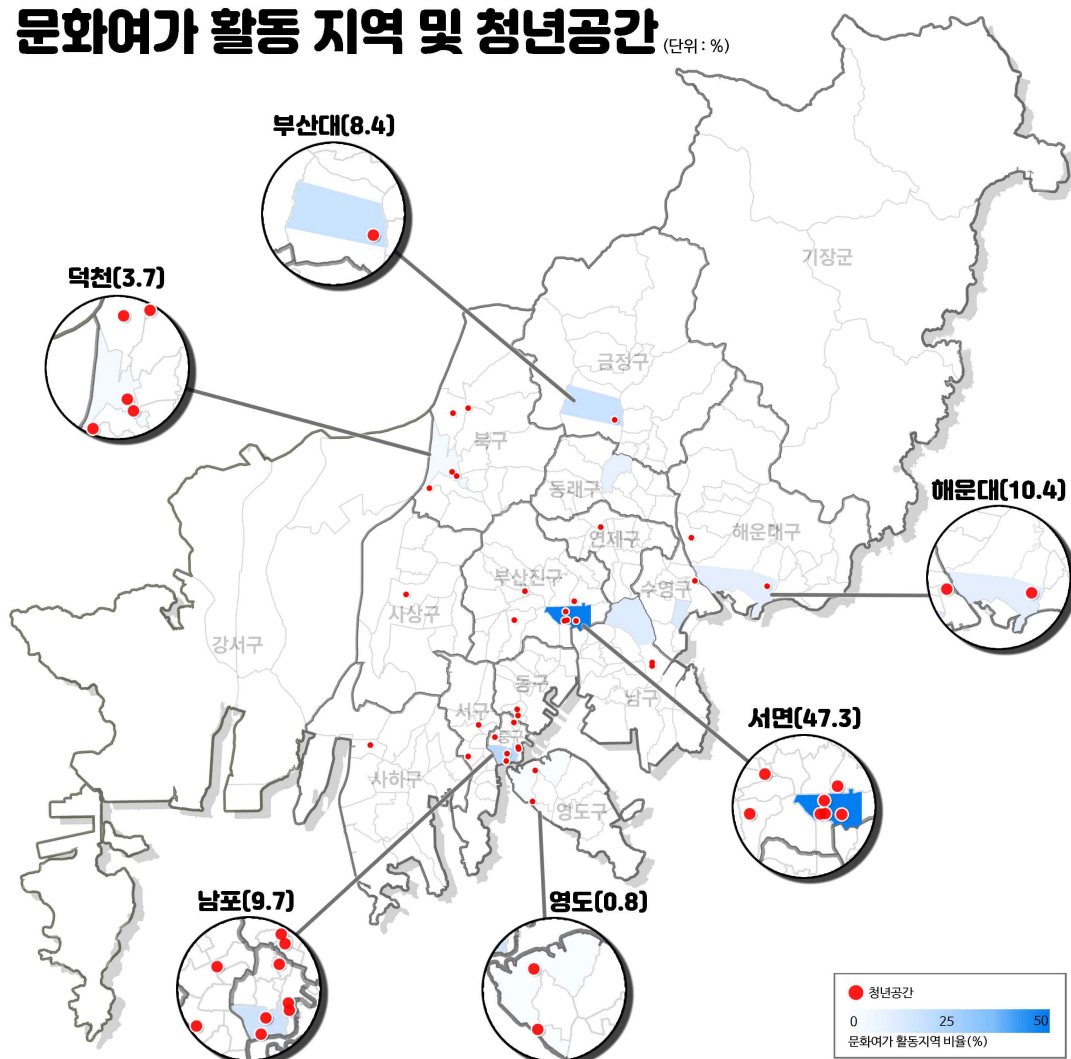
	부산청년 플랫폼 인지도			부산청년 플랫폼 참여경험		
	계수	표준오차	승산	계수	표준오차	승산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133 †	0.078	1.143	0.328 **	0.126	1.389
연령	0.02	0.014	1.021	-0.006	0.023	0.994
교육 (준거: 고졸이하)						
대학재학	-0.052	0.248	0.949	-0.538	0.368	0.584
대학졸업	0.19	0.171	1.21	-0.095	0.267	0.909
대학원	0.467 †	0.263	1.595	0.418	0.385	1.518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동부산	-0.019	0.099	0.981	-0.206	0.163	0.814
서부산	0.125	0.102	1.133	0.34 *	0.161	1.405
원도심	0.132	0.124	1.142	-0.23	0.201	0.795
월 평균 가구소득	-0.028 *	0.013	0.973	-0.065 **	0.022	0.937
혼인 (준거: 미혼)						
기혼/이혼/사별	-0.159	0.141	0.853	-0.341	0.224	0.711
직업 (준거: 회사원/자영업)						
프리랜서	0.001	0.36	1.001	0.582	0.553	1.79
학생	-0.308	0.215	0.735	-0.394	0.325	0.675
주부	0.04	0.27	1.04	-0.53	0.451	0.589
무직/준비	0.265 †	0.141	1.304	0.301	0.204	1.351
출신 고등학교 지역 (준거: 부산)						
울산/경남	0.097	0.146	1.102	0.671 **	0.23	1.956
기타	0.516 *	0.204	1.675	1.171 ***	0.294	3.225
(상수)	-0.833	0.448	0.435	0.172	0.732	1.187
카이제곱	111.690 ***			111.083 ***		
Pseudo-R ² (McFadden)	0.028			0.068		
BIC	4025.825			1643.142		
사례수	2952			1218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10) 정책참여: 청년들의 주요 문화·여가 활동 지역과 청년공간

- 청년들이 주로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지역은 서면(47.3%), 해운대(10.4%), 남포(9.7%), 부산대(8.4%) 순으로 서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청년들의 주요 문화/여가활동 지역 내에 청년공간(붉은색 점)의 접근성을 확인한 결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면보다는 남포동에 집중되어 있어 공간의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북구, 사상구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주로 문화/여가활동을 즐기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여 개선을 고려할 필요

문화여가 활동 지역 및 청년공간 (단위: %)



제 4 장

결론

제1절 정책제언: 핵심지표 중심으로

제2절 패널조사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발전 방안

제1절 정책제언: 핵심지표 중심으로

1.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1)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¹⁰⁾

(1) 중소기업 일자리 리뉴얼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CEO를 대상 고용환경 개선, 직업훈련 확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액 증가 및 기업 성장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공유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열악한 복지와 노동환경(63.2%), 낮은 급여 수준(48.9%)임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CEO의 개선 의지와 실천이 중요
- 지역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 금융 및 세제 혜택,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원, 지역인재 우선 연계, 적극적 기업 홍보 제공에 따른 기업 인지도 제고 등의 혜택을 제공

(2) 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 확대

- 이전 공공기관·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 지원을 확대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
- 중견기업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중견기업 진입을 지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창구 마련,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 도출 및 협력 방안을 모색

10) 서옥순(2021), 일자리 여건 변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BDI정책포커스, 395호, 부산연구원.

- 중견기업 여건에 맞는 업그레이드 된 지원 정책을 제공
 - 중견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

(3) 청년 중소기업 탐험대 운영

- 청년 중소기업 탐험대 참여를 원하는 청년을 모집해 탐험대를 구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알리기 위한 탐험활동을 진행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발굴 및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
- 청년과 부산시 및 관련 기관이 협력해 청년 눈높이에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근로 복지, 근무 환경, 일터 주변 환경, 채용 기준 등을 확산
 -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에게 부산 중소기업을 소개
 - 부산 청년패널조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은 여성, 고졸이하,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구직기회를 확대
- 청년들이 직접 방문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선별해 방문을 진행하도록 지원
 -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기업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고 싶은 사항에만 집중함으로써 탐방 효과를 제고
 - 기업 탐방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
 - 기업 탐방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참여수당 제공
- 청년이 원하는 기업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기업에 연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탐방대에 역할을 부여
 - 중소기업 탐방 과정에서 중소기업 인력 채용 담당자와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을 모두 만나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

2)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¹¹⁾

-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기업 정보,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마련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확대 못지않게 중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시가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 포털인 ‘부산일자리정보망’에 대하여 응답자의 53.4%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이용경험은 34.9%로 낮은 편
 - 부산지역 청년층의 취업 소요기간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 취업지원 대상 청년층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그룹으로 나누고 해당 그룹의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전문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맞춤형 지원 필요
 - 전문 상담-교육 및 직업 훈련-취업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업 취약계층, 취업 가능한 기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정도의 서비스만 필요로 하는 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 제고
 -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로 취업 소요기간 단축 및 눈높이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효과 기대
-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층 그룹별로 사업운영 및 평가체계를 다양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청년층 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룹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므로 특성에 따라 그룹별로 사업성과 평가체계를 다양화하고 사업 효과 제고 필요

11) 서옥순, ‘부산지역 청년층 지역이동과 일자리 확대 방안’, 일자리브리프, 26호(2019).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매칭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차원의 인력 및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사업 설계 필요
- 부산시 전담 인력 및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사업체,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 등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¹²⁾

1) 부울경을 아우르는 산학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 대학 인프라 경쟁력을 활용해 부울경 초광역권을 아우르는 산학혁신공간 ‘사이언스 파크’(가칭) 조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창업 의사를 높이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할 필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창업 의사가 낮은 편
 - 부울경 청년들이 동남권을 생활공동체로 인식하고 지역에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
 - 부산의 대학 인프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학혁신공간(사이언스파크)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남권 산업경쟁력을 강화
-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에 산업·교육·문화를 집적한 R&D 중심의 혁신공간을 조성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형 지산학 협력체계 고도화’를 견고히 할 필요
 -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울산/경남 출신 청년들의 창업의사가 부산출신 청년들보다 높았음
 - 울산/경남 출신 청년들이 대학 졸업 이후 부산에서 창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타지역 출신 창업가를 고려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
- 부산시·대학·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동남권 산학혁신을 선도
 - 기계·조선 등 지역적 우위가 있는 기존 산업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IT·바이오 등 신산업 발굴을 위해 부울경 각 지역의 장점을 중심으로 고도의 협력관계를 구축¹³⁾
 - 미래형 신산업 유치,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공간을 조성해 기업 유치와 산학협력을 활성화

12) 손헌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의 가능성과 대전환’, BDI정책포커스, 406호(2022)

13) 박충훈, ‘메가시티 전략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이슈와 포럼, 38호(2021)

〈표 4-1-1〉 사이언스파크가 선도해야 할 최신 기술 트렌드

주요 키워드	주요 산업	성장 원인
지속가능	바이오헬스,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스마트팜	·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가 국내외 핵심 이슈로 부각 ·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으로 인해 청정에너지 분야가 중요
디지털 전환	로봇,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ICT	·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팩토리 시장 본격 성장 ·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

2) 부산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유치

○ 부산의 사회문제를 기술 기반으로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유치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시 주도 사회혁신 프로그램 ‘Start up In Residence(SIR)’을 벤치마킹

〈표 4-1-2〉 Start up In Residence(SIR) 프로그램

- 지역의 다양한 문제(하천관리, 이민자 사회통합, 공동체 활성화 등)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유치해 6개월간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검증 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들을 공공조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 SIR프로그램이 시작된 2015년 이후 30여개 이상의 새로운 기술기반 기업이 지역에서 활동

○ 부산의 경우 창업 의사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창업 의사를 살펴보면 서부산 지역 거주 청년의 창업의사(31.4%)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기술기반의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부산 지역 내 산업 구조 재편 및 경제적 양극화 극복을 도모 할 수 있음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지역문제 해결 효과를 기대

- 부산의 새로운 산업혁신 주체와 사회혁신에 동원 가능한 자원들이 모이는 기회를 제공
-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온 기술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확장

- 초고령사회가 직면하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IOT를 적용한 고령자 가정의 제어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병 예측, 웨어러블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 혁신적 실버산업은 고령화시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장수경제(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들이 경제와 소비를 주도하는 현상)'를 이끄는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 가능¹⁴⁾

〈표 4-1-3〉 4차 산업혁명 주요 핵심기술과 고령친화산업 적용 전망

핵심기술	관련기술	주요 내용
IOT	반도체, 센서 및 통신기술, 가전제품 등	고령자 가정의 방법, 가전, 냉난방, 조명 제어 등
Mobile	IoT 연계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고령자 식단 및 건강 관리, 병원진료 예약
Big Data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감성분석 등	고령자 의료정보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
AI (소프트웨어)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퍼지이론(Fuzzy Theory) 등	고령자 맞춤형 의료, 질병 예측, 예방
Robot (하드웨어)	센서, AI, 통신, SW콘텐츠 등	수술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 간병, 노인생활보조

자료: 김근령(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대응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 김정근, '실버산업 해외사례와 활성화 전략', 고령화리뷰, 37호, 2020

3) 벤처기업·소셜벤처 유치 및 성장 지원¹⁵⁾

- 부산의 경우 벤처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님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졸업자(25.4%)에 비해 고졸자(34.5%)의 창업 의사가 더욱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소셜벤처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
 - 청년들이 살기 좋은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더불어 금융·세제·토지·지원금 혜택을 확대해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
- 청년 벤처기업·소셜벤처 단지 조성으로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제고
 - BS청년벤처 붐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네덜란드 PortLX와 같은 벤처기업 성장 지원 기업도 함께 유치해 청년벤처기업을 지원
 -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부산 해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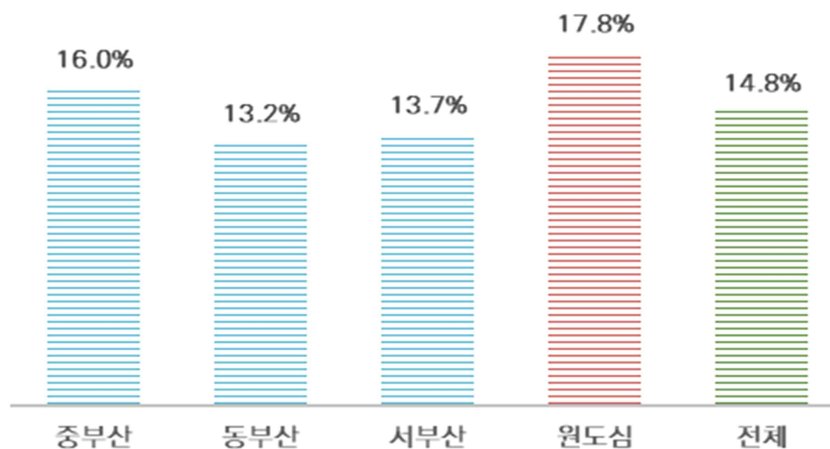
〈네덜란드 PortLX〉

- 항만, 해운, 물류, 운송, 에너지, 석유화학, 해양 등 분야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 2015년 설립되어 로테르담, 엔트워프, 싱가포르 등에 지사를 운영
 - 로테르담항만청, Van Oord(네덜란드 해양시설업체), Shell Oil 등 16개 파트너사와 사업 진행
 -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한 100일 집중 교육·훈련, 멘토링, 파트너 발굴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
 - 2015~2018년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로테르담PA, Van Oord 등과 84건의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

15) 서옥순, '일자리 여건 변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BDI 정책포커스, 395호(2021).

3. 소득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

- 일자리 지원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강화 필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세대를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분야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6.6%는 '소득 지원'이라고 응답
- '코로나 세대'라는 신조어에서도 확인되듯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청년세대라는 점에서 청년들의 소득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가 신규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 일자리 부족 및 사회진출의 지연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청년의 경제적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6%가 가구 소득이 전년도 대비 나빠졌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44.3%는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 부산 청년의 14.8%가 상대적 소득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원도심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의 소득 빈곤율이 1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패널 분석 결과 상대적 소득 빈곤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군과의 협력을 통해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할 필요
- 부산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부비론)’,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등에 추가적 재원을 투입하여,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청년 부비론은 ‘22년 361명을 대상으로 약 13.75억 원(전액 시비)이 투입
 - 청년 신용회복 지원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위탁(시비 3억 원)하여 신용회복 및 연체 예방 지원
-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따른 영향이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고,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인 청년시기 부채는 전 생애에 걸친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강화가 필요한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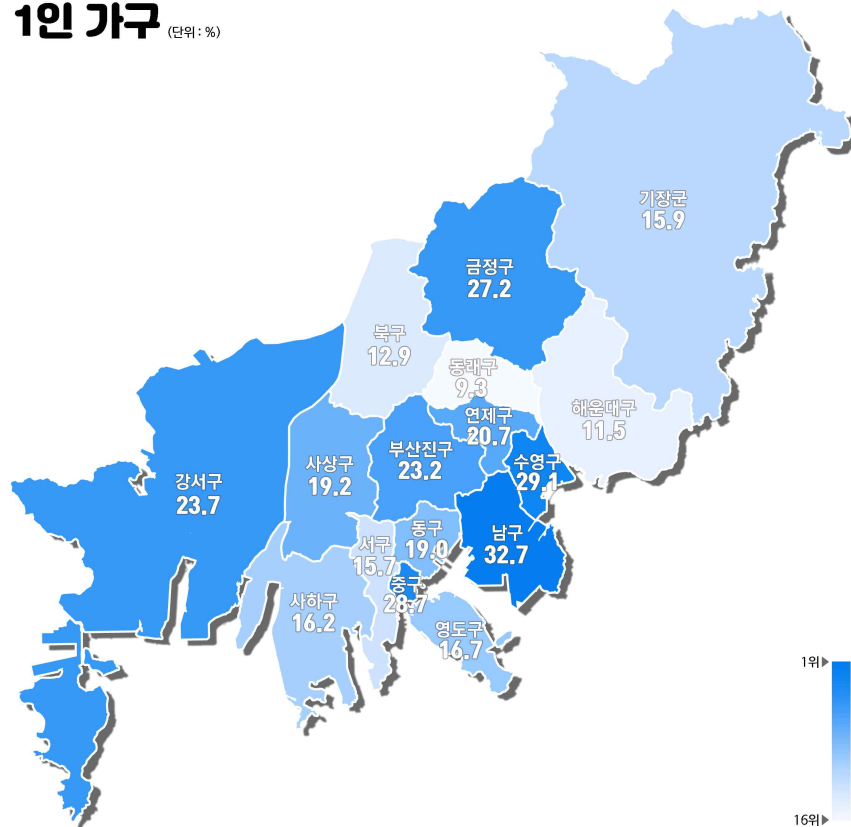
4. 청년 1인 가구 지원정책 강화¹⁶⁾

1) 청년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 청년 1인 가구는 취학, 취업과 같은 생애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구성
 -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및 주거, 건강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김세현 외, 2022)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 무직자에 비해 회사원 및 자영업자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정책이 더욱 필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 타지역에서 이주한 청년의 경우 부산지역 출신 청년에 비해 1인 가구를 구성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타지역 출신 청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서초구, 강동구, 성동구 등)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 중(김세현 외, 2022)
 -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심리상담사가 상주중에 있으며,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부산의 경우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청년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 중심의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 부산 청년패널조사 조사결과 타지역에 비해 남구 및 수영구, 중구, 금정구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6) 김세현,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부산연구원(2022).

1인 가구 (단위 : %)



-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청년 정책 확산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1인 가구 이외의 다양한 청년의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함으로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집중
 - 1인 가구의 특성 및 개인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집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구 프로그램인 ‘공구도서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 ‘코인세탁소’, 부동산 및 집수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 또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공유부엌’사업이나 소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 대여 사업 진행이 가능함
-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 1인 가구 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립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지원 사업 확대

- 부산 청년 1인 가구 구성원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
 - 2021년 부산시의 인구 천명 당 범죄발생건수는 33.5건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높은 편임(경찰청, 2021)¹⁷⁾
 - 청년패널 분석 결과 다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1인 가구 구성원들이 지역의 안전에 대해 더욱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부산 청년 1인 가구 구성원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
 - 2022년 기준 부산시는 ‘청년안심주거 사업’ 및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대학가 안심존 프로젝트’ 와 같은 정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타 시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청년 1인 가구 안전 정책을 도입하여 거주 환경의 개선이 필요
 -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및 안심마을 조성, 여성·청년 안심 홈세트 지원을 통해 주거침입, 절도,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거주환경 조성(김세현 외, 2022)
 - 위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안심 어플을 개발 및 운영하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망을 기반으로 한 안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심야 마을버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가 필요 (김세현 외, 2022)

1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시도))

5. 타지역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¹⁸⁾¹⁹⁾

1) 부산 이주 청년을 위한 웰컴박스 지원 사업

- 전국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이외에도 부산 청년의 수도권 유출 증가는 부산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임
 - 부산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은 이후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력의 저하, 부양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부담 증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 수도권 집중현상의 강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김세현 외, 2022)
 - 부산 청년인구 유출의 86%는 수도권으로 이주 과정에서 나타남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 부산 청년의 28.7%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으로 이주해 온 청년의 경우 타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았음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부산지역 출신 청년에 비해 타지역 출신 청년의 역외 이주 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청년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을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한편, 부산으로 이주해 온 타지역 청년들이 부산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서울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 온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전입 청년 1인 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을 시행 중
 - 1인 가구 웰컴박스 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타지 생활에서 필요한 간단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
 - 이주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 인구의 유입 촉진과 더불어 유입된 청년인구의 재유출 방지에 기여
- 타 시·도에서 부산으로 유입된 청년에게 전입하는 청년 1인 가구에 부산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및 정보 제공하는 웰컴박스 제공사업 추진이 필요

18) 김세현,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부산연구원(2022).

19) 손현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의 가능성과 대전환’, BDI정책포커스, 406호(2022)

- 이주청년에게 필요한 물품(상비약, 주방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를 장려하고, 부산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사업을 통해 이주청년들이 부산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구 유입 증가 및 재유출 방지에 기여

2) 타지역 청년 및 학업종료 유학생의 ‘부산 살기’ 지원

- 타지역 청년 및 학업종료 유학생의 ‘부산 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필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주한 타지역 청년의 43.8%는 학업을 위해 부산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타지역 청년들의 이주의사가 높았음
 - 학업 종료 이후 이동 가능성이 높아 학업종료 타지역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안정적 주거정책 추진과 타지역 출신 및 외국인 청년에 대한 정책을 병행
 - 영남지역 청년 대상으로 부산 이주 의사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68.5%가 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주거문제를 꼽았음(부산연구원, 2021)
 - 부산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년 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부산시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 조성 등 청년·신혼부부 등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타지역 청년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
- 청년주거 지원 시 일상 안전을 고려한 정책 필요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2021년 9월 23일 개정)에 담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
 - 개정안은 방법시설 설치 비용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경찰 등 기관 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및 지원 체계 마련

○ 청년 1인 가구를 고려한 주거 안전 관련 정책을 마련

- 1인 가구 밀집지역 식별, 지역별 범죄발생 유형 조사 및 정책 우선순위 발굴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 부산시가 실행 예정인 1인 가구 청년(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집에서 사는 18~34세)에게 창문잠금장치, 휴대용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 사업'을 확대

〈표 4-1-4〉 청년 관련 주요 주택 공급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	청년주택: 2022년까지 15,647호 공급 청년주거비: 2022년까지 11,755명 지원 계획
신혼부부(Lucky 7 house)	신혼부부 지원 주택(7년 무상), 2022~2026년 300호 지원
부산드림아파트 공급	청년층에 저렴한 아파트 공급, 11개소 추진 중(3,272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자료: 부산시 2022 주요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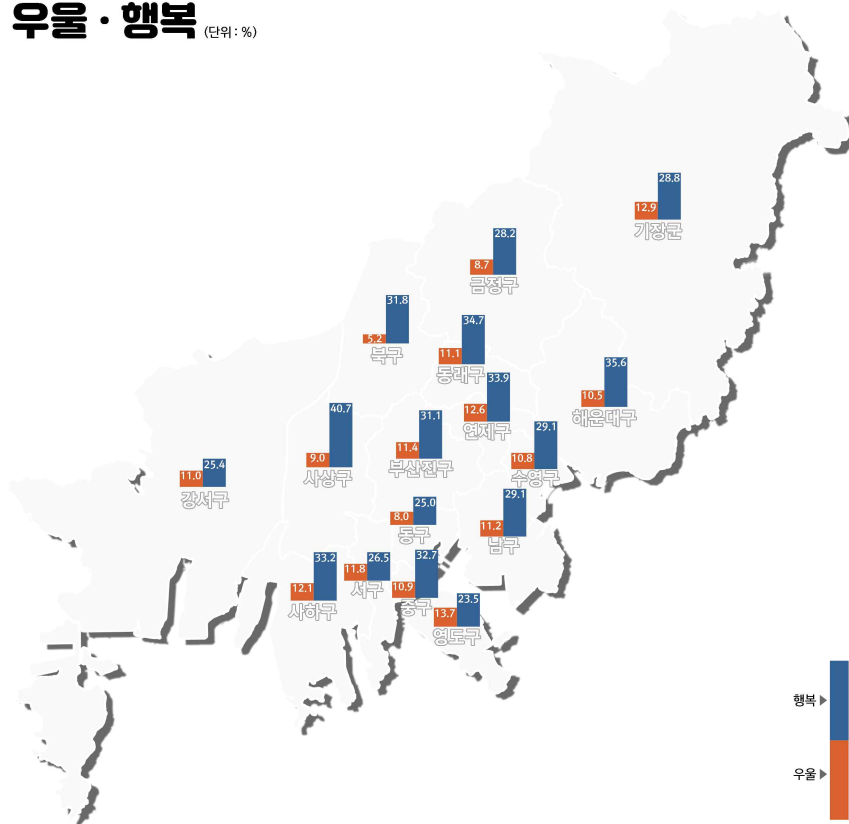
6. 청년 마음건강 관련 정책 강화

1)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정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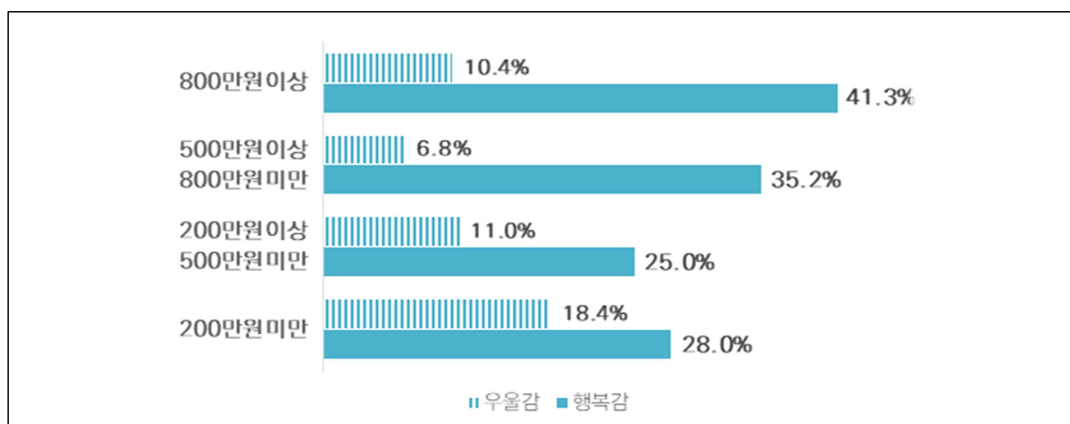
-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의 문턱이 높아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청년 10명 중 1명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음
- 우울감이 높은 구·군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고위험군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 구상이 필요

우울 · 행복

(단위: %)



- 부산시가 2022년 추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강화할 필요
 - 2022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3억 원,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는 6억 4천만 원으로 운영되었지만, 부산지역 청년 10명 중 1명이 우울감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족한 예산임
 -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단절,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 강화가 필요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음건강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접근성과 서비스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현재 부산시와 구·군에서 조성한 청년소통공간을 중심으로 마음건강 및 심리치료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
 - 외로움, 우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취미 개발, 공통된 관심사 모임 지원, 마음돌봄 교육,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건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
- 저소득 가구에 소속된 청년들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할 필요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촉진과 일자리 조성, 구직자 지원 정책 또한 마음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한 정책 간 연계성 강화 필요



2) 청년센터가 전문 기관과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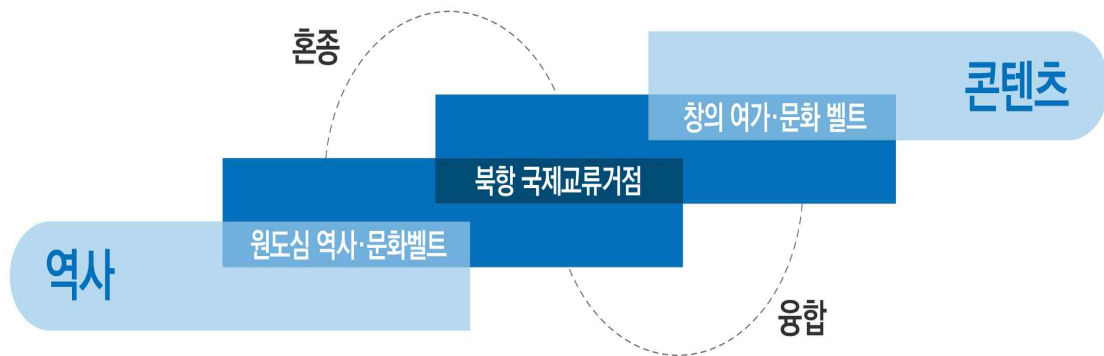
-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청년센터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치구·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내 의료기관, 민간 심리상담 기관, 지역대학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자치구·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 접근성을 높일 필요
 - 현재 각 구·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관련 네트워크 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
- 청년센터는 고위험군 청년 발굴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추진
 -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청년센터가 집중 발굴하고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축한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민간시설과의 협업체계를 설계
 - 청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대학의 임상심리전공자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자치구·군별 청년 심리지원단 운영 고려
- 마음건강에 대한 강의와 캠페인을 활용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이 병행될 필요
 - 청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이나 정서적 불안정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드러내고, 털어놓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

7.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

1) 문화를 통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구현

- 자연환경,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 ‘문화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이주의사가 낮았음
 - 이러한 결과는 문화 경쟁력을 확보한 도시가 청년 이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함
- 다른 대도시가 갖추지 못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차별화하는 전략 필요
 - 부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역사콘텐츠(개항, 피란수도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BIFF·G-STAR· 아트부산 등 대형 국제행사 개최 도시
 - 부산의 해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청년 문화정책을 마련
- 부산의 해양자원과 문화·콘텐츠가 융합할 수 있는 청년문화 공간을 조성
 - 북항에 ‘컬처 플랫폼(청년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 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교류가 가능한 장으로 활용
 - 북항 해양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원도심 역사문화벨트와 창의문화벨트를 연계한 문화 벨트를 조성
 - 원도심 역사(과거), 서면 도심(현재), 북항 재개발(새로운 미래)을 연결해 해양문화 도시의 장점을 살린 청년들의 예술과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을 발굴해 발전시킬 필요
 -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연관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기획자들의 네트워크 및 실험 공간으로 운영

〈그림 4-1-1〉 역사·창의문화벨트 개념



자료: 부산시, '부산문화2030 비전과 전략', 2019

○ '실험과 도전' 정신의 청년문화 지원 강화

- 청년예술부산(YAB, YouthArtsBusan) 부흥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지역기반형 청년 문화예술 창작 기회를 제공

2) 청년 선호 지역을 고려한 청년공간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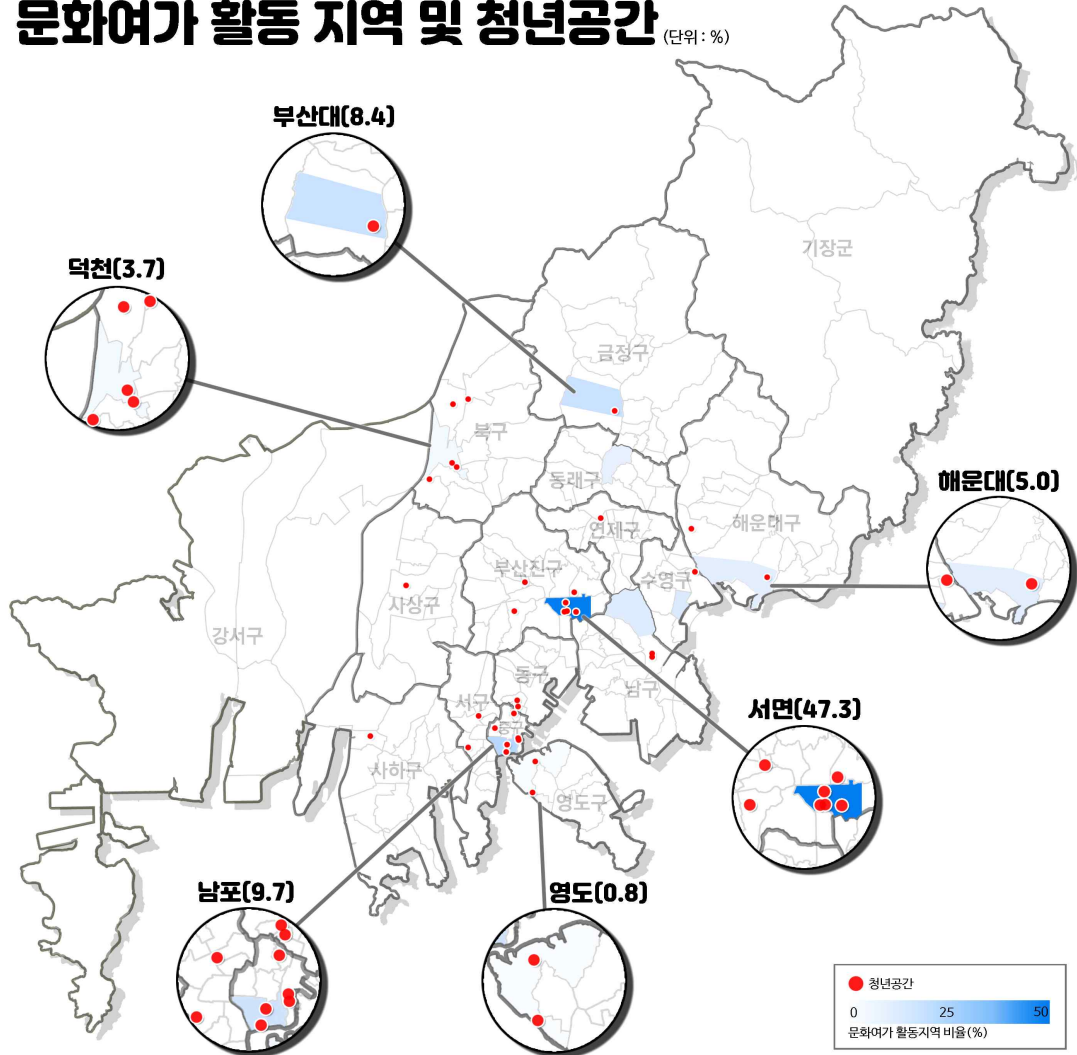
○ 청년들이 문화, 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주요 도심지로 청년센터 이동을 고려할 필요

- 현재 자갈치에 위치한 청년센터를 서면 인근으로 이동하는 방안 필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문화, 여가활동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지역은 서면(47.3%)이고, 청년센터 인근인 남포동·영도(10.5%)를 방문하는 청년은 현저히 작은 편

○ 청년들의 주요 문화여가 활동 지역의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활용성을 높일 필요

- 북구, 사상구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문화/여가활동을 즐기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여 개선을 고려

문화여가 활동 지역 및 청년공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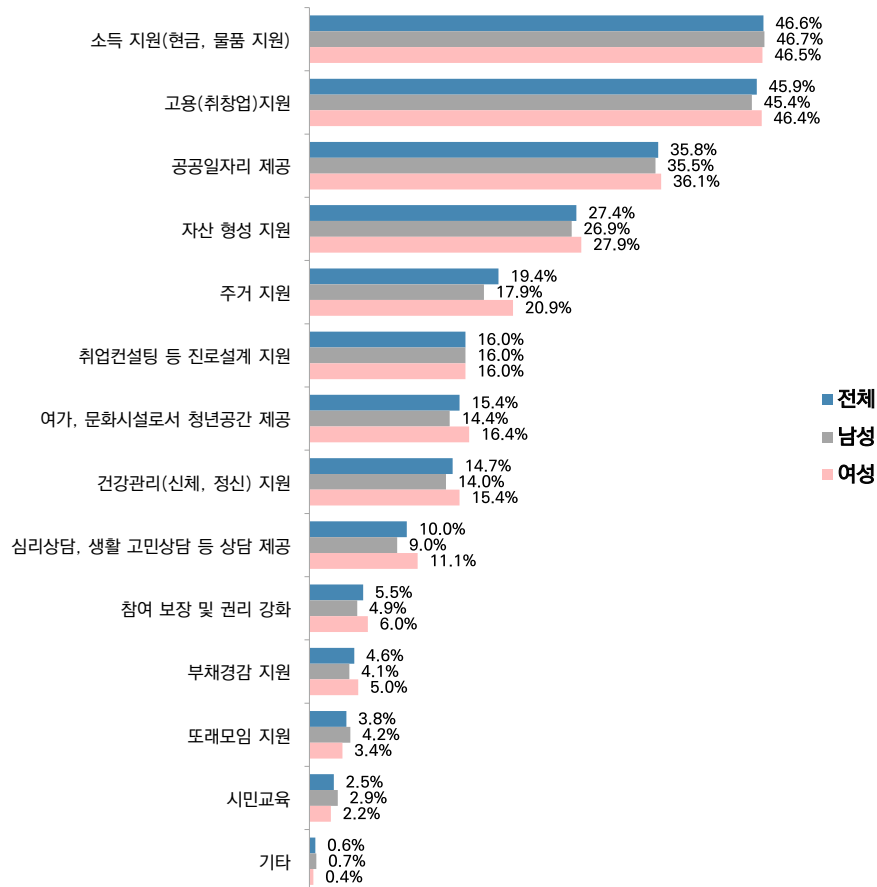
8. 청년정책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 및 정책 홍보강화

1)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의 재구조화

○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청년 특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 과거 “노동, 일자리”가 부산 거주 청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최근 소득지원에 관한 정책 수요가 증가
- 부산 청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소득 지원 정책(46.6%)이 제시
- 변화하는 청년의 정책수요를 고려한 정책의 비중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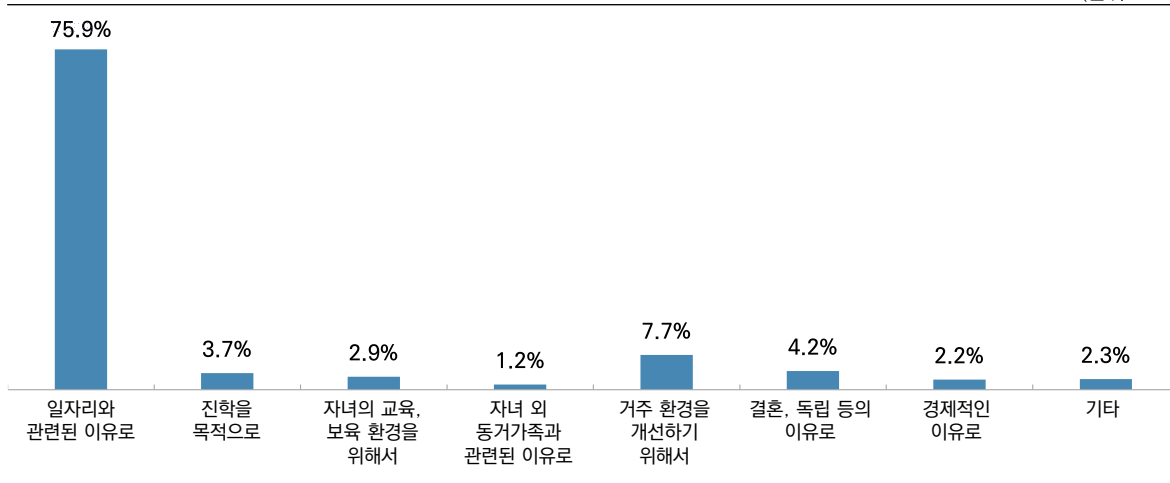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4-1-2〉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분야_성별

- 청년층의 세분화그룹별로 다르게 형성된 관심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청년정책 수립이 병행되어야함
- 지역 이탈의 주요 원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 필요
 - 최근 증가한 소득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와 더불어 청년이탈의 주요 문제인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이 지속될 필요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을 떠나려는 이유의 75.9%는 일자리와 관련

(단위 : %)



〈그림 4-1-3〉 부산을 떠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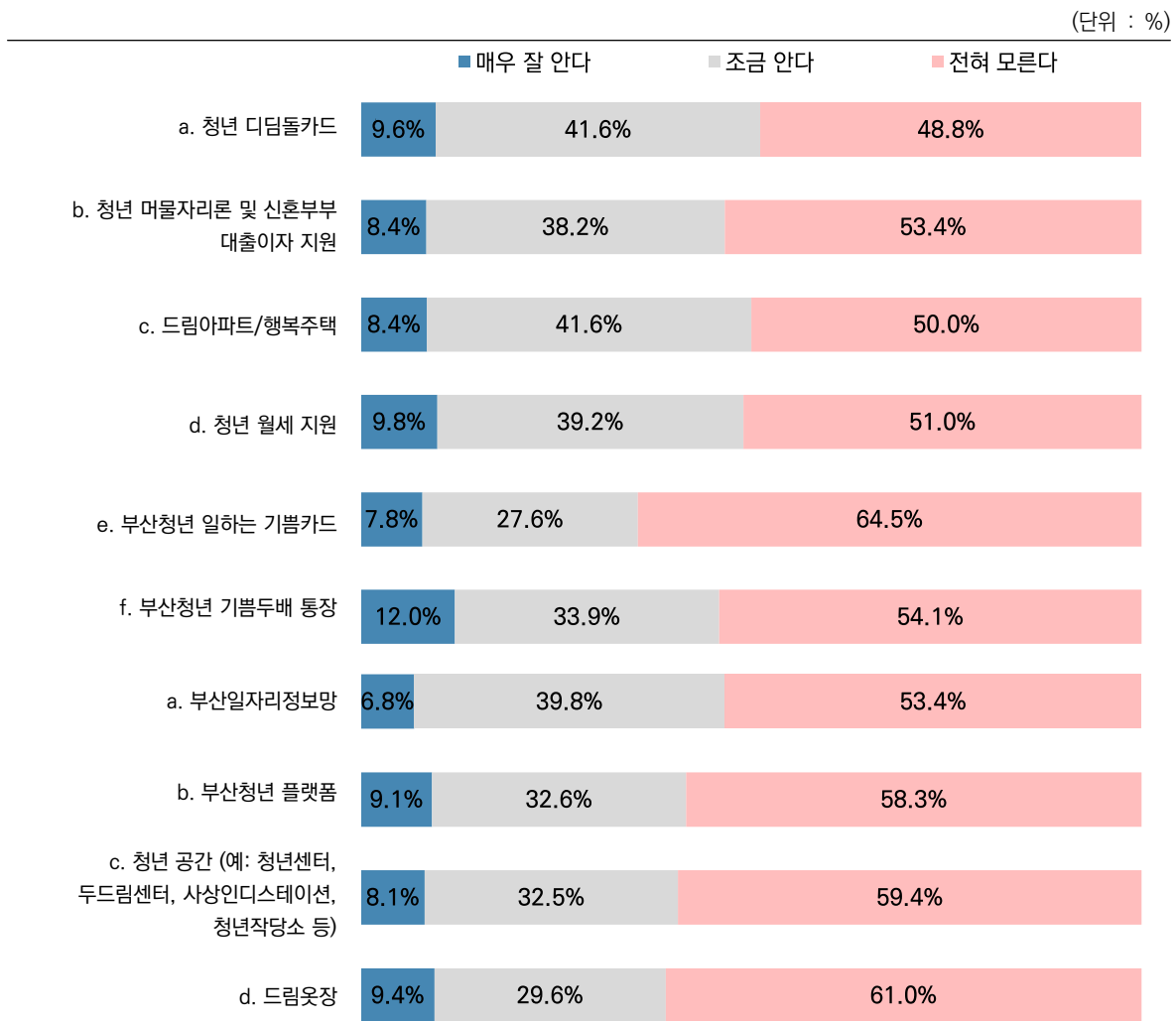
-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관한 희망과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 구상이 필요
 -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일자리를 식별하고, 미래 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산업 정책 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 확보 노력 절실
 - 부산시, 지역대학, 연구기관, 상공회의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업전환에 대비하여 직업전환 지도를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현재 직무와 가장 유사한 새로운 직무를 컨설팅하고 관련 교육·훈련 참여를 유도
 - 정부 주도의 평생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생애주기와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훈련제도 설계가 필요

- 부울경 경제 동맹을 활용하여 부산이 부울경 산업혁신 거점도시로 육성 및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박충훈, 2021)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지역 청년들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인식하고, 수도권이 아닌 동남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 및 미래에 대한 전망 제시 필요
 - 제조업의 경우 울산과 경남이 제조업 혁신을 담당하고 부산은 중앙업무 기능으로써 경영컨설팅, 법률, 회계, R&D기능과 같은 서비스를 유치
 - R&D와 지역산업 인재양성 기능을 위하여 부산지역 대학은 거점 국립대학과 대형 사립대학 중심으로 대학원 강화 및 R&D 역량을 제고하여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혁신을 선도할 R&D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 경남과 울산 지역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배출 할 필요

2)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역시 취업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지도는 높지 않고 신청한적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부산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청년기쁨두배카드’를 제외하고는 인지도는 약 50% 수준이며, 정책들을 신청한적 없다는 응답이 모두 75% 이상으로 나타남
- 청년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들에게 정책 전달체계를 고민하고, 좋은 정책들이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
 -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정보망 등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통을 위한 창구인 일자리 정보망, 청년정책플랫폼, 청년센터 등 청년공간, 드림웍장 등에 대한 인지도 역시 50% 미만으로 낮은 상황임
 - 현재 활용중인 다양한 소통 플랫폼은 현재와 같은 Push형의 일방적 정보제공 중심에서 양방향 소통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의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소통을 위한 핵심 채널과 접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022년 부산 청년패널조사



〈그림 4-1-4〉 부산시 청년정책 인지도

제2절

패널조사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발전 방안

1. 패널조사의 의의

□ 시계열 추정, 종단적 연구가 가능한 부산광역시 청년패널 구축

- 본 조사 이전의 부산시 청년 관련 통계들은 단년도에 조사 표본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일회성 통계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조사 방식, 대상자 선정 등에 차이가 많아 매년 생산되는 통계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또한 년도별, 격년 주기 등으로 진행되는 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에 민감한 청년 특성 및 다이내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하다보니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유사한 표본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본 조사는 향후 5년간 패널 가입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패널에 가입시켜 조사 진행시마다 표본 특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년도 별로 추적하며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부산광역시 이탈 청년들에 대한 추적 가능

- 본 패널 가입자는 매년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조사 진행 시 현 거주지 등에 대한 추적 확인을 실시할 예정임
- 매년 부산광역시의 청년인구 유출을 고려할 경우, 추적 확인 진행 시 취업, 학업, 결혼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이 약 7~8%정도 발생이 예상되며 부산광역시 청년패널조사는 패널조사 진행 시점에 부산시에 거주중인 사람만이 패널에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탈락자가 발생하게 됨

- 타지역 이주자 대상 발생 시 이주 사유 및 귀향 의사 등을 추적하여 진행 및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 가능

2. 향후 발전 방안

1) 패널 이탈자 최소화를 위한 패널 유지 방안 수립 필요

- 본 조사 패널의 경우 연령이 34세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패널에서 탈락되지 않으며, 향후 5년간 추적조사 진행 예정
- 매년 고정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주로 인해 패널 탈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패널 특성의 유지 및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패널 탈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패널 가입자 대상 정기적 청년 관련 소식안내 및 소규모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2) 인센티브 확충을 통해 패널의 질을 관리할 필요

- 예비조사 인터뷰 과정에서 ‘대면으로 30분 이상 설문조사는 부담’, ‘양이 너무 많아서 후반부 내용은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음’ 응답
- 문항의 난이도와 양이 많아 현재 지급되는 3만원의 보상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패널 응답의 충실성과 패널 유지를 위해서는 패널 응답자에 대한 보상 금액을 증액할 필요

3) 응답자의 피로도 감소 필요

- 본 조사의 조사표는 노동, 경제활동, 주거,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삶의 질, 가치관, 사회통합, 청년정책 등 부산광역시 거주 청년들의 삶의 환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나 세부 문항 포함 시 약 200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어 응답자 및 패널의 피로도 우려

- 실제 패널 모집 과정에서 가구 방문 시, 패널 및 답례품 관련 사항에 관심을 보이
다가도 조사문항 확인 이후 패널 가입을 포기하거나 조사 도중에 중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본 조사에서 패널 가입 및 향후 5년간 조사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감안하면,
추후 조사 시 응답자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문항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연구 주제 발굴 필요

- 패널 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에 활
용할 필요
- 패널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정책 연구들이 제안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의 경우 패널 데이터를 공개하여 학술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으며, 청년패널을 활용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들을 모아 ‘청년정책 컨퍼
런스’를 개최하였음
-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
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주요 연구 주제들이 발굴되었음

〈표 4-2-1〉 청년패널을 활용한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책영역	주요 연구 주제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간과 소득 - 청년니트족 관련 연구(규모의 추이 변화 및 가구형태, 청년 니트족의 정신건강 변화 등) - 청년의 취업,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분석 - 청년의 최초 일자리 지역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분석 - 청년창업의 애로요인과 창업활성화 연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빈곤 및 순자산 빈곤 청년의 규모 변화 - 경제적 빈곤이 청년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과 삶에 대한 태도의 관계
주거 및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RIR)과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규모 변화 - 부산지역의 거주지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 지역 청년의 역외 순유출에 대한 이해 -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 및 일자리의 질제고 · 부산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청년의 수도권 이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강 및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우울감 결정 요인: 노동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 청년들의 우울감 결정 요인: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1인 가구 등) - 고용안정과 신체정신적 건강간의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 및 고용불안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청년의 미래전망, 주관적 행복의 변화 추이
가치관 및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결혼 및 출산의향, 지역의 소속감에 대한 변화 - 사회적 관계가 결핍된 청년의 규모 변화,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가구규모 등의 상관관계 분석 - 코로나19 시기 가구형태에 따른 사회적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 · 건강(건강상태), 관계(사회적 관계의 결핍), 생산(실업), 주거(최저주거 기준) 실태 등에 따른 사회적 배제 실태 및 영향요인
정책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가 취업 또는 창업에 미친 영향 -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경로 - 청년정책 이용자 특성 분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자의 생활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지출 부담과 규모(비용) - 행복의 요건에 대한 청년의 인식 변화

부록

부산 청년패널조사 조사표

2022년 부산 청년패널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재)부산연구원은 부산광역시의 싱크탱크로 부산시 청년(만 18~34세)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와 변화(2022~2026년, 5년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청년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시행되며, 청년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종합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 연구책임 : (재)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손헌일
- 조사수행기관 : (주)서던포스트 김정수 과장 (051-983-2031)

응답자 이름		이메일 주소	
면접원		연락처	- -

응답일시	월 일 시 분	응답 총 소요시간	분
------	---------	-----------	---

Q1. 주민등록지(시)	① 부산				② 부산 외 지역 (⇒ 조사 종료)			
Q1-1. 주민등록지역(구)	【동부산】	① 동래구	⑫ 해운대구	⑬ 금정구	⑭ 기장군			
	【서부산】	② 북구	⑫ 사하구	⑫ 강서구	⑫ 사상구			
	【중부산】	③ 부산진구	⑫ 남구	③ 연제구	③ 수영구			
	【원도심】	④ 중구	④ 서구	④ 동구	④ 영도구			
Q1-2. 주민등록지역(동)	(동)							
Q2. 거주지	① 주민등록지와 같음 (⇒ Q3. 이동)							
	② 주민등록지와 다름				① 부산 (⇒ Q2-1. 이동) ② 부산 외 (⇒ 조사 종료)			
Q2-1. 거주지역(구)	【동부산】	① 동래구	⑫ 해운대구	⑬ 금정구	⑭ 기장군			
	【서부산】	② 북구	⑫ 사하구	⑫ 강서구	⑫ 사상구			
	【중부산】	③ 부산진구	⑫ 남구	③ 연제구	③ 수영구			
	【원도심】	④ 중구	④ 서구	④ 동구	④ 영도구			
Q2-2. 거주지역(동)	(동)							
Q3. 주된 일자리	① 회사원		② 사업체(자영업) 운영		③ 프리랜서		④ 학생	
	⑤ 주부		⑥ 취업 및 창업 준비		⑦ 무직		⑧ 기타()	
Q3-1. 일자리 여부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A7. 응답 후 A37. 이동)							
Q4.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Q5. 출생 연도		년		
Q6.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사별			Q6-1. 자녀 유무		① 있음(명) ② 없음		
Q7. 부모 동거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Q8.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 재학 중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Q9.출신(졸업) 고등학교 소재지	① 부산 ② 경남 ③ 울산 ④ 대구 ⑤ 경북 ⑥ 서울 ⑦ 경기 ⑧ 인천 ⑨ 광주 ⑩ 대전 ⑪ 세종 ⑫ 강원 ⑬ 전남 ⑭ 전북 ⑮ 충남 ⑯ 충북 ⑰ 제주 ⑱ 해외 ⑲ 기타(검정고시 등) ⑳ 해당 없음							
Q10. (재학·졸업한) 최종 대학 소재지	① 부산 ② 경남 ③ 울산 ④ 대구 ⑤ 경북 ⑥ 서울 ⑦ 경기 ⑧ 인천 ⑨ 광주 ⑩ 대전 ⑪ 세종 ⑫ 강원 ⑬ 전남 ⑭ 전북 ⑮ 충남 ⑯ 충북 ⑰ 제주 ⑱ 해외 ⑲ 기타(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등) ⑳ 해당 없음							

A. 노동



공통질문

A1. 귀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직활동 :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하여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 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

- ①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 ②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 ③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 ④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 ⑤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 ⑥ 기타()

A2. 귀하께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 ①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 ②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
- ③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 ④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 ⑤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자유로운 일자리
- ⑥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 ⑦ 적성에 맞는 일자리
- ⑧ 복리후생이 우수한 일자리
- ⑨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 ⑩ 기타()

A3. 만약 취업, 이직한다면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대기업
- ②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
- ③ 외국계기업
- ④ 중견기업
- ⑤ 중소기업
- ⑥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 ⑦ 창업
- ⑧ 기타 ()

A4.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귀하는 취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A4-1. (①과 ②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낮은 급여 수준
 ② 복지, 노동환경 열악
 ③ 고용 불안정
 ④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⑤ 사회적인 편견
 ⑥ 기타()

A5.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취업이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A6. 귀하는 향후 6개월 이내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7. 귀하는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적이 있으십니까?

※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인턴, 프리랜서, 자영업,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무인점포 운영이나 숙박 임대업 등은 포함하되, 부동산 임대나 주식투자 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 A8. 이동)

↳ A7-1. (①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학업을 계속하게 되어서
 ②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맞지 않아서
 ③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④ 기술 및 기능이 부족해서
 ⑤ 동료 또는 상관과의 불화 때문에
 ⑥ 보수, 승진 등의 불만 때문에
 ⑦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⑧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
 ⑨ 창업이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⑩ 폐업이나 사업(일)종료로 인해서
 ⑪ 해고
 ⑫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⑬ 건강상의 이유로
 ⑭ 육아 및 가사의 이유로
 ⑮ 기타()

※ A8부터 A36까지는 취업자 및 자영업자만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Q3에서 ① 회사원, ② 사업체(자영업) 운영, ③ 프리랜서 응답)

미취업자는 A37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A8. 현재 일자리의 사업체 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대기업
- ②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
- ③ 외국계기업
- ④ 중견기업
- ⑤ 중소기업
- ⑥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 ⑦ 창업
- ⑧ 기타 ()

A9.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 ① 1명 ② 2~4명 ③ 5~9명 ④ 10~49명 ⑤ 50~99명 ⑥ 100명 이상

A10.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신 주된 일자리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대표 및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 ③ 사무 종사자(사무직)
- ④ 서비스 종사자(서비스직)
- ⑤ 판매 종사자(판매직)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숙련직)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직)
- ⑧ 장치, 기계 조작/조립 조사자(장치기계조작)
- ⑨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직)
- ⑩ 직업 군인(군인)
- ⑪ 기타()

A11.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는 다음 중 어느 산업에 해당하니까?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 건설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⑮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국제 및 외국기관
- ㉑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A12. 현재 주된 일자리 이외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직장(일자리)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A13. 이동)

↳ A12-1. (①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주된 일자리 외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②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③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⑤ 이직을 위해 사전에 다른 일 경험을 쌓기 위해서
⑥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⑦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일할 수 있어서
⑧ 기타 ()

A13.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임금노동자
② 상용 임금노동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③ 임시노동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일용노동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1일 단위 고용)
⑤ 특수형태노동자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쿠팡서비스 배달원 등)
⑥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 (유급고용원을 채용해 자영업하는 고용주)
(⇒ A24. 이동)
⑦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개인 프리랜서 포함) (⇒ A24. 이동)
⑧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 취업자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A14. 현재 하고 계시는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을 얼마나 되십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주당 노동시간은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예.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 등)의 경우 1년 중 일한 날 하루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였을 시에 환산 시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 평균 근무시간 6 × 5일 = 주당 노동시간 30시간)

※ 만약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합산된 노동시간을 작성해 주세요.

A15. 귀하의 현재 모든 일자리의 주당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 _____ 시간

A16. 귀하가 희망하는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 _____ 시간

A17.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희망 소득(월평균)은 얼마 정도입니까?

월급(월 소득) : 세전 _____ 만원

A18.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수준이 귀하의 학력수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① 일의 수준이 아주 낮다 ② 일의 수준이 낮다 ③ 유사하다
④ 일의 수준이 높다 ⑤ 일의 수준이 아주 높다

A19.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수준이 귀하가 가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① 일의 수준이 아주 낮다 ② 일의 수준이 낮다 ③ 유사하다
④ 일의 수준이 높다 ⑤ 일의 수준이 아주 높다

A2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이 귀하의 전공과 일치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1.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 노동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부여, 타인의 일 전가, 고함 및 모욕적인 발언, 물리적 폭력,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 집단 따돌림,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성적불쾌감을 느끼는 행동, 직원의 권리(휴가 사용, 복지혜택 등)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위험한 노동환경 : 위험한 노동 환경에는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시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 등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a. 현재 회사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b. 현재 직장의 상사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c. 현재 직장의 동료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d. 현재 직장의 경제적 보상(임금과 복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e. 현재 직장에서 승진 기회는 적절하게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⑨
f. 현재 직장의 업적 평가 방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g. 현재 직장의 고용안정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h. 현재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i. 현재 직장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A22. 귀하는 아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A22-1. (A22. ④와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가 아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④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을 위해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기타()

↳ A22-2. (A22. ④와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아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현재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② 다시 취업을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③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
 ⑤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⑥ 현재 아직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이라서
 ⑦ 기타()

A23. 귀하는 미래에 언젠가는 창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②,③을 선택한 경우 PART B.경제활동 이동)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A23-1. (④와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응답 후 PART B.경제활동 이동)

- ①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② 적당한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④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⑤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⑥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⑦ 취업 시 스펙이 될 수 있어서
 ⑧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⑨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⑩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⑪ 기타()



※ 자영업자, 창업자 및 프리랜서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A24. 창업(자영업)을 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적당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 ② 가족의 가업이라서
- ③ 내 적성에 맞기 때문에
- ④ 연령,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서
- ⑤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 ⑥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서
- ⑦ 미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 ⑧ 기타()

A25. 귀하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③ 1년 이상~2년 미만
- ④ 2년 이상~3년 미만
- ⑤ 3년 이상~5년 미만
- ⑥ 5년 이상

A26. 귀하가 현재 사업체를 준비를 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④ 1년 이상~2년 미만
- ⑤ 2년 이상

A27. 귀하가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창업 관련 교육 이수 | ② 사업 아이템 선정 |
| ③ 상권 분석 | ④ 사업 계획 수립 |
| ⑤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 ⑥ 마케팅 계획 수립 |
| ⑦ 입지 선정 | ⑧ 자금 마련 |
| ⑨ 관련 업종 담당 종사자 만남 | ⑩ 창업 관련 스터디 참여 |
| ⑪ 기타() | ⑫ 준비 안 함 |

A28. 귀하가 직접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 _____ 시간

A29. 한 달에 평균 며칠 정도 쉬십니까?

- ① 전혀 쉬지 못함 ② 한 달에 1~2일 ③ 한 달에 3~4일
④ 한 달에 5~7일 ⑤ 한 달에 7~9일 ⑥ 한 달에 10일 이상

A30.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개인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b. 나는 일하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c.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d. 나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e. 나는 가능하면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A31.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동종업계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 ② 대기업·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확장 때문에
- ③ 온라인몰, 배달앱 등 인터넷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 ④ 높은 임대료 때문에
- ⑤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 ⑥ 물가인상으로 인한 원재료 상승과 같은 생산 비용의 부담 때문에
- ⑦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 ⑧ 기타()

A32.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은 정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앙정부, 부산시 지원 정책 등 모두 포함)

- ① 지원 경험 없음
- ② 창업 교육(창업 강좌, 아카데미 등)
- ③ 시설 공간(창업보육센터, 시제품제작소 등)
- ④ 멘토링/컨설팅(창업 자금 연계 컨설팅 등)
- ⑤ 사업화 지원(창업아이템 사업화 등)
- ⑥ 정책 자금(정부/공공기관 융자, 보증 등)
- ⑦ R&D 지원(창업아이템 R&D 등)
- ⑧ 마케팅, 판로, 해외 진출(수출) 지원
- ⑨ 창업행사, 네트워크(박람회, 경진대회 등)
- ⑩ 기타()

↳ A32-1. (①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창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
- ②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잡해서
- ③ 선정평가 요인이 까다로워서
- ④ 신용등급 제한 등 기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 ⑤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⑥ 지원 혜택이나 효과가 별로 없어서
- ⑦ 지원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A33. 창업 시 초기 자본을 조달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본인 | ② 가족, 친지 |
| ③ 동업자 | ④ 다른 개인(친구 등)으로 부터 |
| ⑤ 은행 등의 융자 | ⑥ 정부의 보조 |
| ⑦ 사채업자 | ⑧ 기타() |

A34. 창업 시 초기 자본은 대략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약 _____억 _____만원 정도

A35. 귀하는 업종 전환이나 취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A35-1. (④와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업종전환이나 취업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③ 개인 발전을 위해
 ④ 더 나은 근무환경(출퇴근시간/거리, 동료 등)을 위해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건강상의 이유로
 ⑧ 더 나이 들면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⑨ 집안 사정 때문에(육아, 가사 부담 등 포함)
 ⑩ 기타()

A36.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후 PART B.경제활동 이동)

- ① 창업 관련 교육
 ② 창업 및 경영 1:1 맞춤형 컨설팅
 ③ 창업 및 운영 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
 ④ 온라인 상거래 지원
 ⑤ 창업 공간 지원 (창업 보육센터 등)
 ⑥ 청년, 노인고용장려금 등 임금 지원
 ⑦ 행정 서비스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⑧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격증 과정 등)
 ⑨ 벤처기업 육성
 ⑩ 기타()



미취업자

※ 미취업자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A37.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학생
- ② 취업 준비 중
- ③ 창업 준비 중
- ④ 가사/육아 중
- ⑤ 구직활동 없이 쉬는 중
- ⑥ 구직 활동 중
- ⑦ 기타 ()

※ 구직활동 :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하여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A38. 귀하는 (응답일 기준) 지난 1년 이내에 구직 경험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 포함)

- ① 있음
- ② 없음 (⇒ A40. 이동)

↳ A38-1. (A38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실업 상태=경제활동인구)
 - ② 없음 (구직단념 상태=비경제활동인구)
- (⇒ A39. 이동) (⇒ A40. 이동)

A39. (A38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가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하여
- ②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 ③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 ④ 자신의 발전을 위해
- ⑤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 ⑥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⑦ 취업할 나이가 되어서
- ⑧ 기타()

↳ A39-1. 구직/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
- ② 취업 정보·교육 미흡
- ③ 취업 준비 비용 문제
- ④ 관련 일 경험의 부재
- ⑤ 자격조건(스펙) 맞추기
- ⑥ 기타()

↳ A39-2. 귀하가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알아보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 ①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를 통해
- ②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③ 가족, 친지, 친구의 소개를 통해
- ④ 일자리 관련 센터(고용센터 등)를 통해
- ⑤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⑥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⑦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 ⑧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⑨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⑩ 기타()

A40. (A38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대입/편입/유학 준비 중
 ② 군입대 대기
 ③ 육아/임신
 ④ 가사
 ⑤ 건강상의 이유
 ⑥ 당분간 쉬길 원함
 ⑦ 공시/고시 준비
 ⑧ 취업할 의사가 없음
 ⑨ 기타()

A41. 귀하는 미래에 언젠가는 창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41-1. (④와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② 적당한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④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⑤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⑥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⑦ 취업 시 스펙이 될 수 있어서
 ⑧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⑨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⑩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⑪ 기타()

A42. 귀하가 취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
 ②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기능, 기술 등)
 ③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외국어자격증 취득 포함)
 ④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⑤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
 ⑥ 선배, 친구, 지인 등 인맥관리
 ⑦ SNS, 블로그 등 개인 홍보수단 관리
 ⑧ 학교 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⑨ 봉사활동 경험
 ⑩ 취업 관련 동아리 및 스터디 참여
 ⑪ 기타()
 ⑫ 준비 안 함

B. 경제활동(소득, 자산, 부채, 생활비)



(개인) 경제활동 문항

B1. 귀하의 2021년 1년 동안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유형	소득 금액
a. 노동소득	세전 월평균 _____만원
b. 사업소득 ※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사무실,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뺀 순수익	월평균 _____만원
c. 재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가상자산소득, 자격증 대여, 무형자산 소득, 기타) ※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한 수입, 예금의 이자, 주식 배당금, 주식의 매매차익,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 임대소득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에서 부동산 유지·관리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기타 : 자격증 대여, 무형자산(저작권 인세, 특허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 포함	월평균 _____만원
d. 사적 이전 소득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현금 및 현물소득, 용돈 포함	월평균 _____만원

B2. 귀하가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생활비 지출이 큰 순서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구분	내용
① 식비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음식 및 음식 포장 등
② 주거비	월세, 관리비, 주거 관련 원리금, 각종 공과금 등
③ 의류/잡화비	옷, 신발 등 의류 구매 및 세탁비, 수선비용 등
④ 교통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등
⑤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등 요금
⑥ 교육비	등록금, 학원비, 자기계발, 교재구입비 등
⑦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⑧ 의료비	입원비, 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 등
⑨ 문화 여가비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교양문화비, 여행비, 친구나 지인의 대인관계에 지출 비용
⑩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 비용

매월 평균 _____만원 정도

구분	내용
① 식비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음식 및 음식 포장 등
② 주거비	월세, 관리비, 주거 관련 원리금, 각종 공과금 등
③ 의류/잡화비	옷, 신발 등 의류 구매 및 세탁비, 수선비용 등
④ 교통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등
⑤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등 요금
⑥ 교육비	등록금, 학원비, 자기계발, 교재구입비 등
⑦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⑧ 의료비	입원비, 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 등
⑨ 문화 여가비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교양문화비, 여행비, 친구나 지인의 대인관계에 지출 비용
⑩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 비용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여유 있다 ⑤ 매우 여유 있다

① 있음 ② 없음 (⇒ B6. 이동)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은행 대출, 마이너스통장, 현금서비스 등)
- ② 대부업체(사채)에 빌림
- ③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음
- ④ 비상금 사용, 적금 (중도)해지, 해약
- ⑤ 지인(친구, 이웃)이나 친지에게 빌림
- ⑥ 유형자산 처분(부동산 매각, 자동차나 내구재, 귀중품(금, 은, 명품 등) 매각)
- ⑦ 금융자산 매각(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CD, MMF등) 등 처분)
- ⑧ 기타() ⑨ 해결하지 못함

구분	있음	없음
a. 부모, 가족 및 배우자	①	②
b. 친구나 선후배	①	②
c. 직장동료	①	②
d. 기타()	①	②

B7. 귀하는 현재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	1) 부채유무	2) 부채금액
a. 학자금 마련	① 있음 ② 없음	_____만원
b. 생활비 마련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① 있음 ② 없음	_____만원
c. 주택 구입비	① 있음 ② 없음	_____억 _____만원
d. 주택 보증금 및 임차료	① 있음 ② 없음	_____억 _____만원
e.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비용	① 있음 ② 없음	_____만원
f. 창업 자금 마련	① 있음 ② 없음	_____억 _____만원
g. 투자금 마련 (예. 채테크 등)	① 있음 ② 없음	_____만원
h. 기타 (_____)	① 있음 ② 없음	_____만원

↳ B7-1. (B7에서 부채가 있는 경우만 응답) 귀하가 부채를 조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은행 대출, 마이너스통장, 현금서비스 등)
- ② 대부업체(사채)에 빌림
- ③ 부모님
- ④ 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 ⑤ 친구 또는 지인
- ⑥ 기타(_____)

B8. 귀하는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아래 각 항목별로 연체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	연체경험		
a. 월세, 고시원비, 하숙비 등의 주거비 및 관리비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b.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c.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d. 핸드폰 등 통신요금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e.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연체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f. 기타 (_____)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B9. 귀하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일자리
- ② 소득
- ③ 주거
- ④ 인맥 등 사회적 네트워크
- ⑤ 직무 능력(전문성)
- ⑥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
- ⑦ 부모나 가족의 지원
- ⑧ 기타(_____)

B10. 귀하가 소유한 주택은 몇 채입니까?

※ 재산은 명의를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 예컨대,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집을 산 경우, 비록 본인의 집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가정하고 이를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합니다.

※ 공동명의로는 한 채로 가정해 응답합니다.

※ 거주하는 주택과 재테크의 목적 등의 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 ① 없음 (⇒ B11. 이동) ② 1채 ③ 2채 ④ 3채 이상

↳ B10-1. 소유하신 모든 주택의 현재 가격은 대략 얼마입니까? 약 _____억 _____만원

↳ B10-2. 소유하신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권(매월 이자가 부담되는)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 ① 있음 ⇒ 약 _____억 _____만원 ② 없음

B11. 귀하는 올해(2022년) 부모, 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혹은 상속)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매월 지원받는 용돈 등은 제외)

- ① 있음 ⇒ 약 _____억 _____만원 ② 없음

B12. 귀하가 현재 재테크를 위해 투자한 자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시점 금액 기준)

※ 없을 경우 기입하지 마시고, 비워두시면 됩니다.

※ 재산은 명의를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 예컨대,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집을 산 경우, 비록 본인의 집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가정하고 이를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합니다.

※ 공동명의로는 100%로 가정해 응답합니다.

- ① 재테크 하지 않음 (⇒ B12-1. 이동)

② 재테크 함 (⇒ 응답 후 B12-2. 이동)	a.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상가, 토지, 분양권 등)	_____억 _____만원
	b. 저축 ※ 예금, 적금 등	_____만원
	c. 주식	_____만원
	d. 가상화폐 ※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전자거래가 가능한 증표를 의미 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G), 리플(xrp), 테더(usdt), 도지코인(dogD) 등	_____만원
	e. 기타 ※ 아직 타지 않은 겐돈,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 등)	_____만원

↳ B12-1. (B12. ①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B13. 이동)

- ① 하고 싶지만 여유자금이 없어서 ② 과거 재테크를 실패한 경험 때문에
③ 관심이 없어서 ④ 방법과 정보 등을 몰라서
⑤ 금전적 손실 위험이 클 것 같아서 ⑥ 기타()

↳ B12-2. (B12. ②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가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주변인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②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③ 계층 및 신분 상승을 위해 ④ 지인 권유
⑤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⑥ 생활비 마련
⑦ 결혼 준비를 위해 ⑧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⑨ 노후 대비를 위해 ⑩ 여가 및 취미 생활을 위해
⑪ 기타()



(가구) 경제활동 문항

B13. 귀하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가족 _____명, 가족 외 _____명

※ 가구 작성 기준

- 취업, 학업,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잠시 떨어져 살지만(기숙사, 하숙, 자취 등)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부모님의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생계가 가능하다면 본인이 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자녀 등 본인의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상관없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혈연가족은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가구원	비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 사실혼 관계에 의한 배우자 포함 ·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등 · 미혼 형제자매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 식구는 아니지만 9개월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한 형제자매 중 따로 사는 경우 ·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따로 사는 형제자매 중 재학이나 군 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B13-1. 귀하의 가구원 중 주 생계부양자는 누구십니까?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B14. 현재 귀하와 함께 사는 가족 중 올해 주 1시간 이상 일해서 소득이 있었던 가족 구성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_____명

※ 가구 :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 아닌 가구원은 가구에서 제외합니다.

B15. 2021년 1년 동안 귀하의 소득이 포함된 가구의 '총 소득 (월 평균)'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소득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미만 ⑥ 400~500만원미만
 ⑦ 500~600만원미만 ⑧ 600~700만원 미만
 ⑨ 700~800만원미만 ⑩ 800~900만원미만
 ⑪ 900~1000만원 미만 ⑫ 1000만원 이상

※ 가구 :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 아닌 가구원은 가구에서 제외합니다.

B16. 귀하가 소속된 가구의 총 자산(부동산, 예금, 주식투자금 등)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
|---------------|---------------|
| ① 5천만원 미만 | ② 5천만원~1억원 미만 |
| ③ 1억원~2억원 미만 | ④ 2억원~3억원 미만 |
| ⑤ 3억원~4억원 미만 | ⑥ 4억원~5억원 미만 |
| ⑦ 5억원~6억원 미만 | ⑧ 6억원~7억원 미만 |
| ⑨ 7억원~8억원 미만 | ⑩ 8억원~9억원 미만 |
| ⑪ 9억원~10억원 미만 | ⑫ 10억원 이상 |
| ⑬ 모름 | |

B17. 한국의 일반적 가정과 비교할 때, 귀하가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훨씬 낮다 ② 조금 낮다 ③ 평균 수준이다 ④ 조금 높다 ⑤ 상당히 높다

B18. 작년과 비교할 때 귀하의 가구 소득 상태는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조금 나빠졌다 ③ 비슷하다 ④ 조금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C. 주거 및 이동



주거환경, 주거실태, 교통, 이주

C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거주지)의 주거환경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 다
a. 내가 사는 곳은 달리거나 걷기 같은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내가 사는 곳은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원 등)이 충분히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c. 내가 사는 곳은 아이 키우기에 좋은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d. 내가 사는 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C2.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 인근(15분 거리)에 각 항목의 시설이 충분한지와 각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1) 내가 사는 곳 인근에 충분함					2) 만족함 (시설, 서비스 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녹지공간 (공원, 숲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b. 문화시설 (공연장, 문화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 의료시설 (병·의원, 보건소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 공공 체육시설 (체육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 쇼핑몰, 대형마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3. 귀하가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 입니까? _____명

↳ C3-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

- ① 부모님
- ② 형제, 자매
- ③ 배우자
- ④ 자녀
- ⑤ 친척
- ⑥ 친구
- ⑦ 동료
- ⑧ 기타 ()

- 1) 방 _____개
- 2) 거실(대청마루 포함) _____개
- 3) 화장실 _____개

- 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 ② 휴식의 공간
- ③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
- ④ 나만의 사적인 공간
- 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 ⑥ 자산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 ⑧ 기타()

C14.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시내(마을)버스 ② 도시철도(부산김해경전철 포함) ③ 동해선
 ④ 통근(통학)버스 ⑤ 자가용 ⑥ 오토바이
 ⑦ 자전거 ⑧ 개인용 킥보드
 ⑨ 공유 모빌리티(t바이크, 전동킥보드, 쏘카 등) ⑩ 기타()

C15. 귀하가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출퇴근 ② 등하교 ③ 업무 ④ 쇼핑(구매 등) ⑤ 친교(여가) ⑥ 기타()

↳ C15-1. (①, ②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가 집에서 사업장(혹은 학교)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혹은 통학) 할 경우 이동하는 시간(편도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5분 미만 ② 15분 이상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 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⑤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⑥ 2시간 이상

C16. 귀하가 교통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월평균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약 _____만원

C17. 귀하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교통비가 부담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② 부담스럽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다 ⑤ 매우 부담스럽다

C18. 귀하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시내(마을)버스 ② 도시철도(부산김해경전철 포함) ③ 동해선

C19. 귀하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십니까?

- ①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1일 이하
 ④ 일주일에 2~3일 ⑤ 일주일에 4~5일 ⑥ 일주일에 6일 이상

C20. 귀하는 부산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21. 부산에서 개인용 킥보드나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음 (⇒ C22. 이동) ② 이용한 경험은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③ 한달에 1~2회
 ④ 일주일에 1~2회 ⑤ 일주일에 3~4회 ⑥ 거의 매일

↳ C21-1. 귀하는 부산시에서 개인용 킥보드나 공유 모빌리티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경남 ⑤ 울산 ⑥ 대구
⑦ 경북 ⑧ 대전 ⑨ 세종 ⑩ 광주 ⑪ 전남 ⑫ 전북
⑬ 충남 ⑭ 충북 ⑮ 강원 ⑯ 제주 ⑰ 해외

D.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D1. 귀하는 문화/여가생활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 ①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 관람
- ② 개인 창작활동 (그림, 악기 연주 등)
- ③ 스포츠/체육 활동
- ④ 스포츠 관람
- ⑤ TV, OTT, 유튜브 시청
- ⑥ 영화 관람 (영화관 방문)
- ⑦ 캠핑 · 여행 · 관광
- ⑧ 인터넷, 게임, SNS
- ⑨ 친교활동 (동아리, 소모임 등)
- ⑩ 봉사 · 종교활동
- ⑪ (문화예술분야) 강습
- ⑫ 기타()

↳ D1-1. 귀하는 위 문항에서 선택한 평소의 문화/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 귀하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 1) 평일 (월~금) : 1일 평균 _____ 시간 2) 주말 (토~일, 공휴일) : 1일 평균 _____ 시간

D3. 귀하가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방문하신 문화/여가시설 이용 경험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용경험 '없음'에 체크한 경우, 시설 만족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

구분	1) 이용경험(빈도)						2) 시설 만족도				
	주 3회 이상	일주일 1~2회	한 달 1~2회	3개월 1~2회	1년 1~2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a. 공연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b. 영화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c. 전시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d. 체육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e. 스포츠 관람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f. 박물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g. 쇼핑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공연시설 : 뮤지컬, 연극,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민속놀이, 쇼, 콘서트 등
전시시설 :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체육시설 : 체육관,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골프장, 배드민턴장 등

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 이용 경험 '없음'에 체크한 경우, 만족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

구분	1) 지난 1년간 이용 경험	2) 시설 만족도					3)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a. 문화회관	①있음 ②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b. 시민회관	①있음 ②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 영화의전당	①있음 ②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 시립미술관	①있음 ②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 현대미술관	①있음 ②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5. (응답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가장 자주 방문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면 ② 남포 ③ 부산대 ④ 경성대/부경대 ⑤ 덕천
⑥ 동래 ⑦ 광안리 ⑧ 해운대 ⑨ 영도 ⑩ 기타()

D6.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문화 정보를 가장 많이 얻습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언론, 방송 ② 공공기관 사이트(부산문화재단 등)
 ③ 학교 · 학원 ④ 지인
 ⑤ SNS ⑥ 해당분야 웹사이트
 ⑦ 문화공간 ⑧ 포털사이트 관련 키워드 검색어(네이버, 다음 등)
 ⑨ 기타 ()

D7. 귀하는 (응답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문화/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있음 ⑤ 자주 있음

↳ D7-1. (④, 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가 문화/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함께 즐길 사람의 부족
- ② 비용 문제
- ③ 시간 문제 (예: 학업, 직장, 가족 돌봄 문제 등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
- ④ 공간 문제 (예: 가까운 곳에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 ⑤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험, 지식, 정보나 도움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
- ⑥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 ⑦ 기타 ()

D8. 부산지역의 문화/여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부산의 문화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 공연·전시시설(KBS홀, 문화회관, 현대미술관, 벅스코,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등), 스포츠 관람시설(사직종합운동장, 스포원파크 등),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b. 부산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 각종 박람회, 페스타, 전시·공연 프로그램 등 예) 부산국제아트페어, 지스타, 앙리 마티스 전시회, 풀리처상 사진전, 메그넘 인 파리 등	①	②	③	④	⑤
c.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 시설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연·전시시설(KBS홀, 문화회관, 현대미술관, 벅스코,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등), 스포츠 관람시설(사직종합운동장, 스포원파크 등)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E. 건강 및 삶의 질



신체건강, 정신건강, 삶의 질

E1. 귀하의 건강 상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현재 귀하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b.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편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관리하는 편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 지난 1주일간 잠을 설친(잠을 잘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 (응답일 기준) 지난 3개월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번 이하 ③ 일주일에 1~2번
④ 일주일에 3~4번 ⑤ 일주일에 5~6번 ⑥ 매일

E3.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E4.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우울감이나 분노 등을 느끼셨습니까?

구분	없음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a. 우울감	①	②	③	④	⑤
b. 화, 분노	①	②	③	④	⑤

E5.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음	없음
a. 부모, 가족 및 배우자	①	②
b. 친구나 선후배	①	②
c. 직장동료	①	②
d. 온라인 (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익명 게시판 등)	①	②
e. 기타()	①	②

E6.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음	없음
a.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	①	②
b. 공공 및 민간 전문상담기관	①	②
c. 보건소	①	②
d. 기타 ()	①	②

E7. 귀하가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구분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a. 생활수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건강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미래 안전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8.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행	보통										매우 행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9.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 향상 ② 신체·정신적 건강 ③ 복지 서비스 ④ 교육/평생교육
 ⑤ 지역 공동체 ⑥ 쾌적한 환경 조성 ⑦ 치안 및 안전 ⑧ 기타()

E10.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 ① 재산, 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 성취 ④ 건강
 ⑤ 직업, 직장 ⑥ 대인관계(친구, 연인 등) ⑦ 꿈, 목표의식 ⑧ 기타()

E11.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3. 귀하의 가치관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직업선택에 있어서 고용안정성보다는 소득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b. 일 이외에 자신만의 여가시간이나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나는 경제적 여건이 주어진다면 가능한 일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나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 기성세대(40/50대)는 청년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f. 한국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평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g.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h. 어르신(65세 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F4.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층	중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5. 귀하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층	중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6.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F7.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나의 자녀(혹은 미래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F8. 귀하는 다음 각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구분	전혀 신뢰 안함	별로 신뢰 안함	보통	다소 신뢰	매우 신뢰
a. 가족	①	②	③	④	⑤
b. 친구	①	②	③	④	⑤
c. 이웃	①	②	③	④	⑤
d. 처음 만난 낯선 사람	①	②	③	④	⑤
e. 국내거주 외국인	①	②	③	④	⑤

G. 사회통합



관계, 시정평가 등

G1. 귀하는 (응답일 기준) 지난 1년간 다음의 모임이나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다?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일 년에 한번	일 년에 몇 번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두세번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여러번
a.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종교모임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 교육모임활동 (학부모 모임, 스터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 운동모임활동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 문화모임활동 (독서활동, 예술동호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 사회단체활동 (시민운동, 환경, 인권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 지역단체활동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주민단체, 지역협동조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2. 정부와 부산시정에 대한 평가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음
a. 중앙정부 행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b. 부산시 행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c. 중앙정부를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⑧
d. 부산시를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⑧

G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부산시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 현재 살고 있는 구(군)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현재 살고 있는 동네(마을, 아파트단지)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G4. 다음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들 중, 귀하는 평소에 다음 활동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보통	가끔 함	자주 함
a. 선거 때 투표하기	①	②	③	④	⑤
b. 정치, 사회문제 관련 시사뉴스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c.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d.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올리기	①	②	③	④	⑤
e. 서명운동 참여(인터넷 서명 포함)	①	②	③	④	⑤
f. 집회나 시위 참여	①	②	③	④	⑤
g. 정당 활동(정치인 기부, 당비 납부 등)	①	②	③	④	⑤
h.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③	④	⑤
i. 성차별, 젠더 이슈에 대한 의사 표현	①	②	③	④	⑤

H. 청년정책



중앙정부 및 부산시 청년정책 체감도

H1. 귀하는 다음의 각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구분	1) 정책에 대한 인지도			2) 정책 참여 경험 1)에서 ②, ③으로 응답한 정책만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신청한적 없다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되어 지원받았다
a. 정부 일자리 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①	②	③	①	②	③
b. 국민 취업지원 제도 -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①	②	③	①	②	③
c. 청년 주택 공급 정책 -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주택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①	②	③	①	②	③
d. 청년 주택자금 대출 지원 정책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등	①	②	③	①	②	③
e.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 -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학 기숙사비 부담 경감 등	①	②	③	①	②	③
f.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청년 저축계좌 등	①	②	③	①	②	③
g. 청년 건강지원 정책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청년 국가 건강검진 등	①	②	③	①	②	③
h. 복지, 문화 지원 정책 - 문화누리카드 등	①	②	③	①	②	③

H2. 귀하는 다음의 각 부산시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구분	1) 정책에 대한 인지도			2) 정책 참여 경험 1)에서 ②, ③으로 응답한 정책만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신청한적 없다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되어 지원받았다
a. 청년 디딤돌카드 - 미취업 청년 대상 사회진입활동비 300만원 (50만원×6개월)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b. 청년 머물자리론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c. 드림아파트/행복주택 - 청년 대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민간 임대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	①	②	③	①	②	③
d. 청년 월세 지원 - 무주택 청년 대상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240만원)	①	②	③	①	②	③
e.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문화여가, 자기계 발, 건강 분야에 사용하는 생애 1회 100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f.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 일하는 청년 대상 청년 적립액(10만원, 20 만원, 30만원) 대비 1:1 시 매칭 지원	①	②	③			

H3. 귀하는 다음의 각 부산시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구분	1) 정책에 대한 인지도			2) 정책 참여 경험 1)에서 ②, ③으로 응답한 정책만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신청/이용 한 적 있다	신청/이용 한 적 없다
a. 부산일자리정보망 - 미취업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망 시스템	①	②	③	①	②
b. 부산청년 플랫폼 - 청년정책 제공 및 안내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 홍 보 사이트	①	②	③	①	②
c. 청년 공간 (예: 청년센터, 두드림센터, 사상인디스 테이션, 청년작당소 등) - 청년의 활동, 일자리, 문화 등 종합 지원을 위한 분야별 거점 공간	①	②	③	①	②
d. 드림옷장 - 청년 구직자 대상 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및 코디 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①	②

■ 연구책임 ■

손 현 일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참여 ■

- 김 세 현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 서 옥 순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오 재 환 사회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김 경 수 해양관광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김 경 민 사회문화연구실 초빙연구원
- 김 수 영 사회문화연구실 초빙연구원

■ 조사업체 ■

(주) 서던포스트